

03

음악산업

표 4.3.1 음악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CP제외) (음원제작 및 관련 비즈니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또는 음원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사업체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출판관련)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단순하게 음반을 복제하는 사업체
	음반 배급업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인터넷 음반 소매업	외부자료 인용(사이버쇼핑몰 조사)
온라인 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SK, KTF, LGT만 해당)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음원대리 중개업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업체
	인터넷/모바일 음악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원관련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바일 음악서비스업체 및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에 제공하는 업체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업체(단, 연극은 제외)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 등)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티켓발매 등)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 음악산업 분류는 기획, 제작, 유통 단계에 따라 중분류 7개와 소분류 15개로 체계를 마련하였다.

- 음악제작업 : 음악기획및 제작업과 음반녹음시설 운영업
-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음반복제 및 배급업 : 음반복제업, 음반배급업
- 음반도소매업 : 음반 도매 및 소매업, 인터넷 음반 소매업
- 온라인 음악 유통업 :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 음악공연업 :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3.1 음악산업 전체요약

2009년 음악산업의 업체수는 38,259개이며, 종사자는 7만6,539명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조 7,407억 원이며, 부가가치는 1조 227억 원이었고, 부가가치율은 37.32%로 조사되었다. 수출액은 3,126.9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그보다 낮은 1,193.6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산업은 2005년 약 38,261개 사업체에서 2009년 약 38,259개 사업체로 큰 차이가 없으나, 매출액과 종사자수의 연평균은 각각 11.2%와 4.0%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장 큰 성장을 한 부분은 부가가치액 부분이며, 연평균 약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05년 이후 정체 및 하락을 하다가 2009년에는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아이돌 그룹의 해외진출이 성공을 거둔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음악산업은 과거 음반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인터넷 및 모바일 음악서비스와 공연, 노래연습장 수익, 배경음악 등 매출 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법시장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음원저작권자에 대한 이익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 지금 보다 좋은 음악(음원)이 제작될 수 있도록 음원저작권자들의 이윤창출을 위해 정부 또는 대형유통사업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형기획사들의 아이돌 그룹 위주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이 만듦으로써 진정한 음악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구분	사업체수(개)	종사자(명)	매출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부가 가치율(%)	수출액 (천달러)	수입액 (천달러)
2005년	38,261	65,346	1,789,875	572,760	32.00	22,278	8,306
2006년	37,108	65,431	2,401,309	765,297	31.87	16,666	8,347
2007년	40,301	75,027	2,357,705	787,709	33.41	13,885	9,831
2008년	37,637	66,475	2,602,076	946,635	36.38	16,468	11,484
2009년	38,259	76,539	2,740,753	1,022,766	37.32	31,269	11,936
전년대비증감률(%)	1.7	15.1	5.3	8.0	2.6	89.9	3.9
연평균증감률(%)	▽0.001	4.0	11.2	15.6	3.9	8.8	9.5

표 4.3.3 음악산업 업체별 평균매출액 및 종사자별 평균매출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명)

중분류	소분류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사업체당 평균매출액	1인당 평균매출액
음악제작업	음악기획 및 제작	음반(음원포함)	73,528	572	292	129
		음반외수익(음악관련)	254,459	1,362		1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41	32,342	495	229	65
	소계	1,266	360,329	2,429	285	148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59	9,424	68	160	139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6	676	13	113	52
	소계	65	10,100	81	155	125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52	38,321	147	737	261
	음반 배급업	14	44,705	131	3,193	341
	소계	66	83,026	278	1,258	299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23	36,655	159	1594	231
	음반 소매업	198	63,117	433	319	146
	인터넷 음반 소매업*	-	20,267	161	-	126
	소계	221	120,039	753	543	159
온라인 음악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3	76,502	115	25,501	66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89	359,969	1,469	1,905	245
	음원대리 증개업	43	60,331	163	1,403	370
	인터넷/모바일 음악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01	72,799	732	721	99
	소계	336	569,601	2,479	1,695	230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423	224,359	2,412	530	93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18	33,303	216	1,850	154
	소계	441	257,662	2,628	584	98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35,864	1,339,996	67,891	37	20
	소계	35,864	1,339,996	67,891	37	20
음악산업 평균		38,259	2,740,753	70,539	72	36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음악산업은 1인당 평균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음악제작업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억 4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음악기획 및 제작업’은 1억 7천만원이다.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은 1인당 2억 4천 5백만원이며, ‘음악공연업’은 9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음악산업 사업체당 매출액 중 ‘모바일 음악서비스업’이 약 25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다음으로 ‘음반배급업’이 31억 9천 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산업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반면에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당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음악산업 평균이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약 5억 8천 5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6천 2백만원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2 음악산업 전체 매출 현황

2009년 음악산업 전체 매출액은 2007년에 2조 3,577억 원에서 2008년에 2조 6,020억 원, 2009년에 2조 7,40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5.3%, 연평균 7.8% 증가하였다. 중분류별로 매출액을 보면 '노래연습장 운영업'이 1조 3,399억 원(48.9%)으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5,696억 원(20.8%)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업' 다음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보였다. '음악 제작업'은 3,603억 원(13.1%)이며, '음악공연업'은 2,576억 원(9.4%)으로 조사되었다. '음반 도소매업'은 1,200억 원(4.4%)이며, '음반복제 및 배급업'은 830억 원(3.0%)이며,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은 101억 원(0.4%)으로 매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온라인 음악유통업'이 2007년에 4,276억 원에서 2008년에 5,264억 원, 2009년에 5,696억 원으로 가장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이는 전년대비 8.2%, 연평균 15.4% 증가한 수치이다. '음악 공연업' 또한 '온라인 음악유통업'과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576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 이는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제작업' 또한 2008년에 3,210억 원에서 2009년에 3,6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지만 2007년 매출액 3,931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연평균증감률은 4.3% 감소하였다. '음반 도소매업'은 2009년에 1,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하였으나 2007년 매출액인 1,520억 원에 도달하지 못하여 연평균증감률은 11.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과 음반배급' 및 '복제업'은 각각 전년대비 12.2%, 12.7% 감소하였다.

2009년 음악산업은 음반 외 수익(음악관련)과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인터넷 음악 소매업과 인터넷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음악공연업은 활기를 보이며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눈에 띄만한 성장을 보인 곳이 없었고 감소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에서도 보여주듯 음반 산업의 불황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장기간의 침체로 인해 음반 제작사들은 정규앨범 발매 대신에 상대적으로 제작비가 낮은 미니앨범이나 디지털 싱글 발매를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에 대처할 수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으로 인해 음반시장의 하나의 새로운 흐름으로 바뀌었다. 음반 시장의 장기간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규모의 확대 현상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맞물려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업에도 난제가 있다. 첫째는 온라인 유통업의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이 이미 성장 단계를 지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액은 2007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미 수년간 이용자들의 구매 욕구가 어느 수준까지 충족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는 한 감소세는 지속될 것이다. 두번째는 음반 제작자들과의 수익 분배 문제다. 현재 국내 음악산업은 음악 제작자들보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자들에게 마진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익 분배에 대한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어떠한 시각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점은 다르겠지만, 양자간에 동의가 이루어지는 합의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4 음악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음반 및 음원	76,270	80,231	73,528	2.7	▽8.4	▽1.8
		음반외수익(음악관련)	186,729	201,611	254,459	9.3	26.2	16.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30,195	39,246	32,342	1.1	▽17.6	▽50.2
	소계		393,194	321,088	360,329	13.1	12.2	▽4.3
음악 및 오디오출판업	음악 오디오출판업		-	10,898	9,424	0.4	▽13.5	-
	기타 오디오출판업		-	608	676	0.0	11.2	-
	소계		-	11,506	10,100	0.4	▽12.2	-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	42,348	38,321	1.4	▽9.5	-
	음반 배급업**		-	52,742	44,705	1.6	▽15.2	-
	소계		-	95,090	83,026	3.0	▽12.7	-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38,177	103,195	36,655	1.3	▽3.3	▽15.0
	음반 소매업		-	-	63,117	2.3		
	인터넷 음반 소매업***		13,917	16,634	20,267	0.8	21.8	20.7
	소계		152,094	119,829	120,039	4.4	0.2	▽11.2
온라인 음악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03,170	87,650	76,502	2.8	▽12.7	▽13.9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66,756	253,082	359,969	13.1	42.2	46.9
	음원대리 중개업		18,519	39,671	60,331	2.2	52.1	80.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39,204	146,042	72,799	2.7	▽50.2	▽27.7
	소계		427,649	526,445	569,601	20.8	8.2	15.4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98,853	213,851	224,359	8.2	4.9	6.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24,744	27,801	33,303	1.2	19.8	16.0
	소계		223,597	241,652	257,662	9.4	6.6	7.3
중합계****			1,196,534	1,315,610	1,400,757	51.1	6.5	8.2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1,161,171	1,286,466	1,339,996	48.9	4.2	7.4
	소계		1,161,171	1,286,466	1,339,996	48.9	4.2	7.4
음악산업 합계			2,357,705	2,602,076	2,740,753	100.0	5.3	7.8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음반(음원)녹음시설운영업과 복제업이 분리되어 2006년과 2007년 직접비교는 무리
 ** 2008년 기준조사 음반 도소매업에서 배급업 분리됨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 2006년, 2007년 매출액은 음반매출외(음악관련)매출액 및 음악공연매출액 포함매출

그림 4.3.1 음악산업 중분류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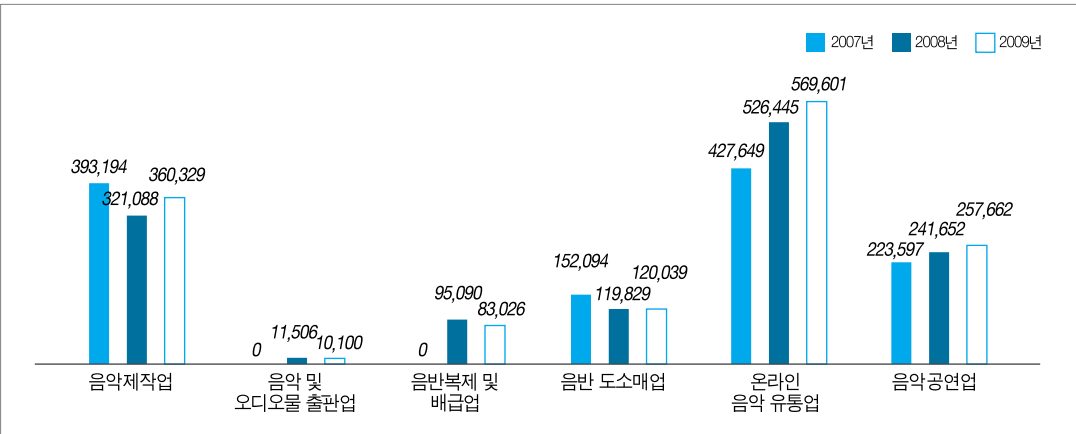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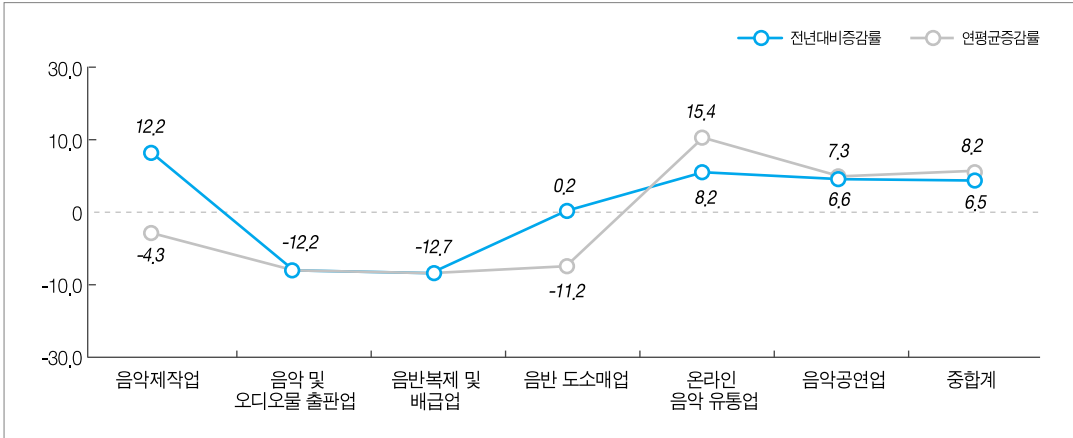


그림 4.3.2 음악산업 중분류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 연평균증감률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도 적용하여 산출

3.2.1. 음악제작업 매출 현황

2009년 음악제작업 매출을 보면 3,603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으나, 연평균은 4.3% 감소하였다. 음악제작업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음반 외 수익(음악관련)’의 매출액은 2,544억 원으로 음악제작업 내 매출액의 70.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반 및 음원’은 735억 원으로 20.4%의 비중을 보이며,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은 323억 원으로 가장 낮은 9.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음반 외 수익(음악관련)’이 2007년 1,867억 원에서 2008년에 2,016억 원, 2009년에 2,544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전년대비 26.2%, 연평균 16.7% 증가하여 중분류 내 유일하게 성장한 산업으로 나타났다. ‘음반 및 음원’은 2007년에 762억 원에서 2008년에 802억 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듯 보였으나 2009년에 735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8.4%, 연평균 1.8%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의 감소현상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에 1,301억 원에서 2008년에 392억 원으로 무려 90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대비 69억 원이 감소한 3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연평균증감률은 무려 50.2% 감소하여 2007년 매출액의 1/4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음반 및 음원의 매출액은 감소한 반면에 음반 외 수익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음반 및 음원 제작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한 손실분을 채우기 위해 음반 외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음반과 음원의 판매가 저조하여 매출액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음반과 음원에 대한 정당한 가격 지불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표 4.3.5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음반 및 음원	76,270	80,231	73,528	2.7	▽8.4	▽1.8
		음반외수익(음악관련)	186,729	201,611	254,459	9.3	26.2	16.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30,195	39,246	32,342	1.1	▽17.6	▽50.2	
	소계	393,194	321,088	360,329	13.1	12.2	▽4.3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음반(음원)녹음시설운영업과 복제업이 분리되어 2006년과 2007년 직접비교는 무리

그림 4.3.3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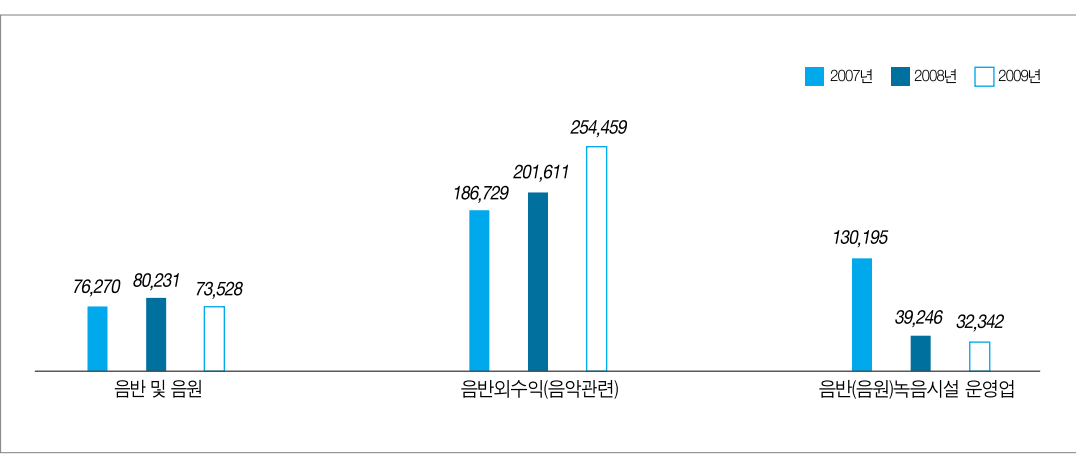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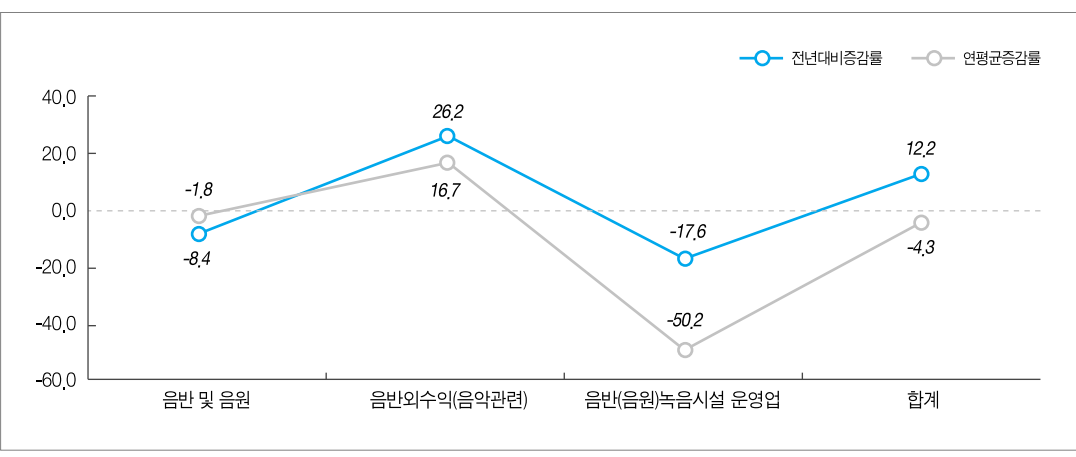


그림 4.3.4 음악제작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2.2.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¹⁵⁾

2009년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매출액은 101억 원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하였다. 소분류별로는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이 94억 원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하였으며,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이 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음반 배급 및 복제업’은 830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다. 소분류별로는 ‘음반 복제업’이 383억 원으로 전년대비 9.5%감소하였으며, ‘음반 배급업’은 4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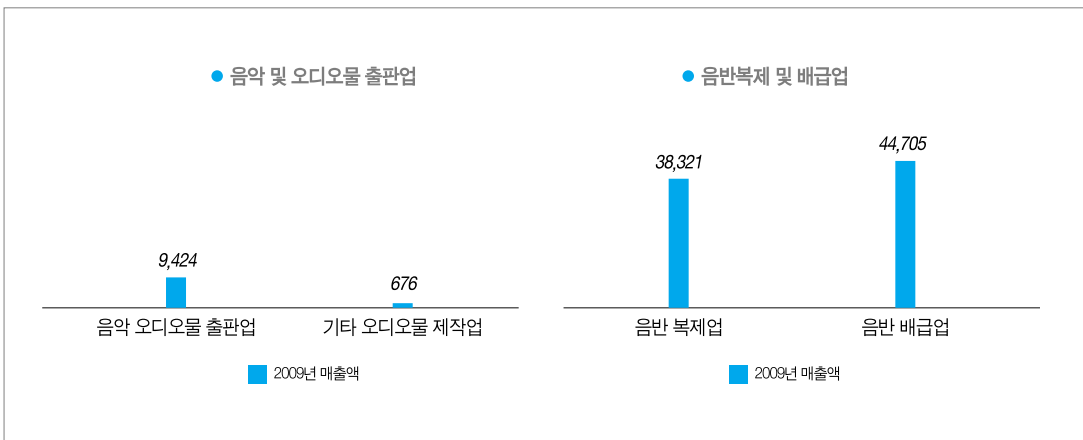
음반 복제와 배급업의 규모 감소는 음반 제작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음반의 복제와 배급 물량도 감소 시켜 전체적인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6 음악 및 오디오물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	10,898	9,424	93.3	▽13.5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608	676	6.7	11.2
	소계	-	11,506	10,100	100.0	▽12.2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	42,348	38,321	46.2	▽9.5
	음반 배급업*	-	52,742	44,705	53.8	▽15.2
	소계	-	95,090	83,026	100.0	▽12.7

* 2008년 기준조사 음반 도소매업에서 배급업 분리됨

그림 4.3.5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3.2.3. 음반 도소매업

2009년 음반 도소매업 매출액은 1,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0.2% 증가했으나 연평균은 1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구성을 보면 ‘음반 도매업’은 366억 원이며, ‘음반 소매업’은 631억 원, ‘인터넷 음반 소매업’은 202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음반 도매업’과 ‘소매업’을 합한 매출액은 997억 원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15.0% 감소하였다. ‘인터넷 음반 소매업’은 2007년에 139억 원에서 2008년에 166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202억 원의 매출을 기록

15) 2008년 기준조사 신규 및 추가 분류체계이므로 2008년 기준조사 자료이외에 비교자료 없음

하여 전년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도 2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인터넷 음반 소매업'의 매출 증대는 가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음반 구매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익이 다른 창구에 비해 더욱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4.3.7 음반 도소매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중분류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38,177	103,195	36,655	30.5	▽3.3	▽15.0
	음반 소매업			63,117	52.6		
	인터넷 음반 소매업*	13,917	16,634	20,267	16.9	21.8	20.7
	소계	152,094	119,829	120,039	100.0	0.2	▽11.2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그림 4.3.6 음반 도소매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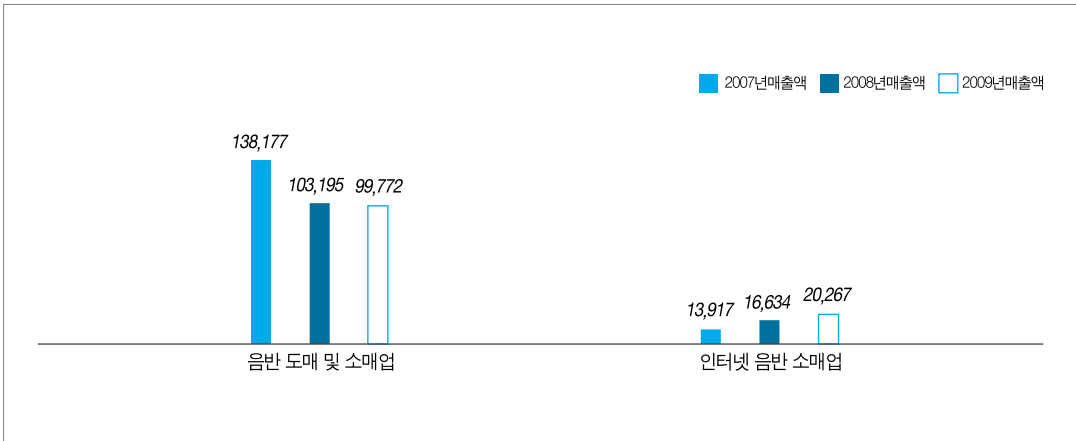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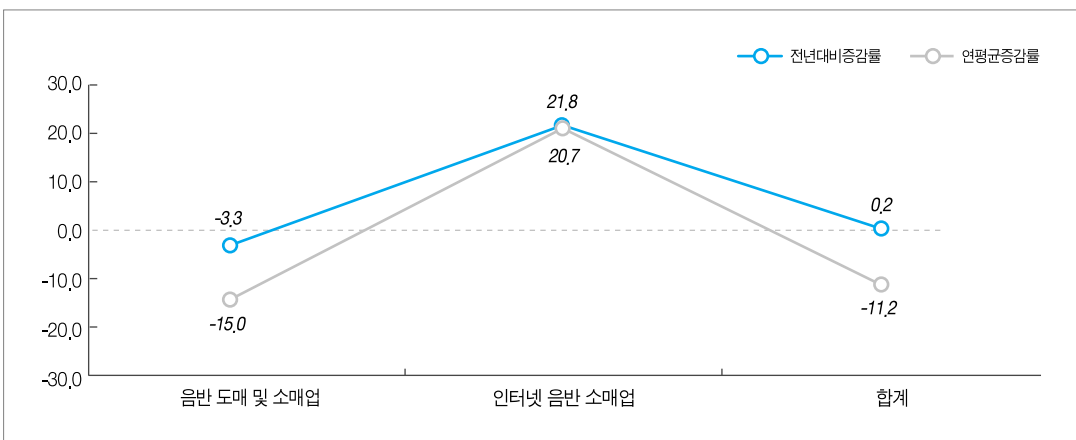


그림 4.3.7 음반 도소매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2.4. 온라인 음악 유통업

2009년 온라인 음악 유통업 매출액은 5,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15.4% 증가하였다. 소분류별로 보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이 3,599억 원으로 ‘온라인 음악 유통업’ 내 63.2%의 가장 큰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765억 원(13.4%)이며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은 727억 원(12.8%), ‘음원대리 중개업’은 603억 원(10.6%)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은 2007년에 1,667억 원에서 2008년에 2,530억 원, 그리고 2009년에 3,599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42.2%, 연평균 46.9%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음원대리 중개업’은 2007년에 185억 원, 2008년에 396억 원, 2009년에 603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여 전년대비 52.1%, 연평균 80.5%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2007년부터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2009년에는 765억 원으로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으며, 연평균은 13.9% 감소하였다.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은 2009년에 727억 원으로 2008년 매출액인 1,460억 원의 1/2 규모로 축소되었고, 전년대비 50.2% 감소하였다.

2009년에 가장 큰 증가폭을 이룬 ‘온라인 음악 유통업’의 매출 구조를 자세히 보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과 ‘음원대리 중개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은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며 성장하였고, 스마트폰의 확대 보급에 따라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 증대 이면에는 음반제작사와의 이익 분배에 따른 논란이 존재하며, 향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200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며, 수년간 충분한 소비가 이루어져 구매욕구가 시장 초기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성장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표 4.3.8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03,170	87,650	76,502	13.4	▽12.7	▽13.9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66,756	253,082	359,969	63.2	42.2	46.9
음원대리 중개업	18,519	39,671	60,331	10.6	52.1	80.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39,204	146,042	72,799	12.8	▽50.2	▽27.7
소계	427,649	526,445	569,601	100.0	8.2	15.4

그림 4.3.8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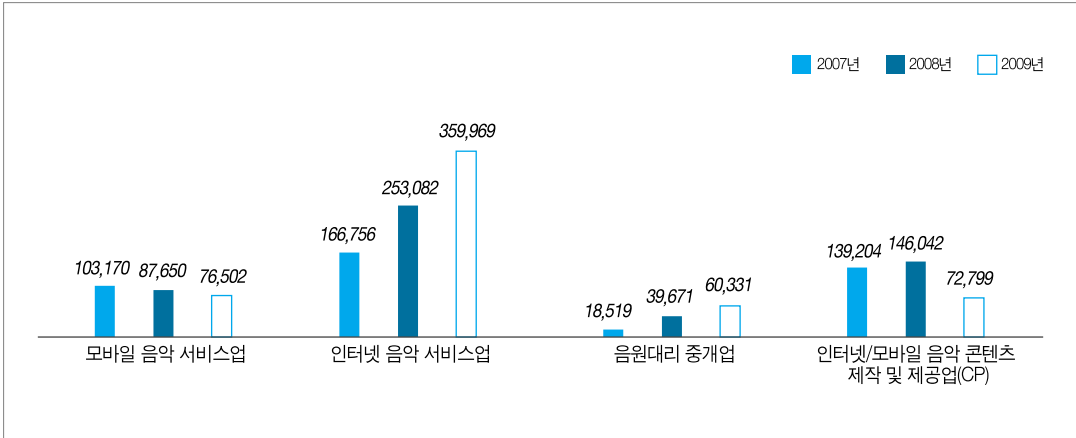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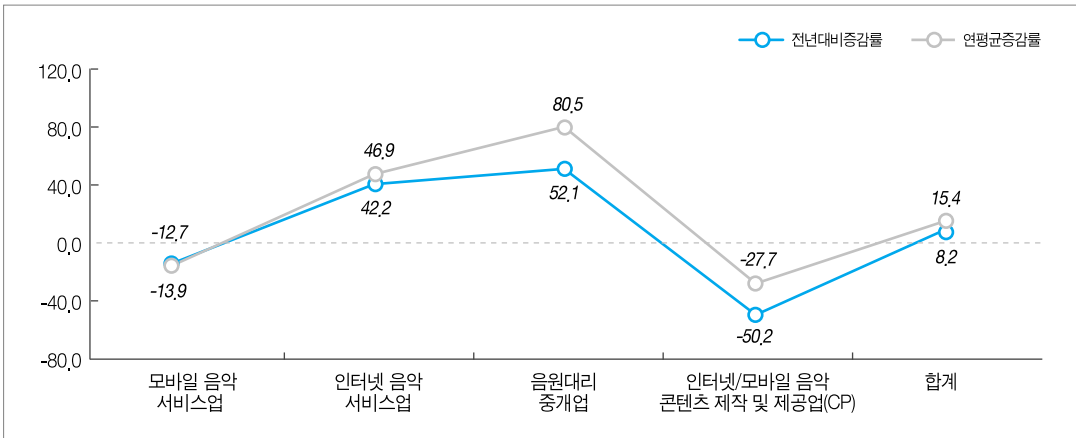


그림 4.3.9 온라인 음악 유통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2.5. 음악 공연업

2009년의 음악 공연업 매출액은 2,576억 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7.3% 증가하였다. 음악 공연업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은 2,243억 원으로 음악 공연업 내 87.1%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 등)’은 333억 원으로 1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은 2007년에 1,988억 원에서 2008년에 2,138억 원, 2009년에 2,243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9%, 연평균 6.2% 증가한 수치이다.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 등)’은 2007년에 247억 원에서 2008년에 27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333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9.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공연의 매출은 2007년부터 증대되고 있다. 이는 음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점차 늘어나면서 공연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하나의 추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나 음반에 비하여 가격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양질의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면 더 높은 성장 폭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3.9 음악 공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98,853	213,851	224,359	87.1	4.9	6.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24,744	27,801	33,303	12.9	19.8	16.0
소계	223,597	241,652	257,662	100.0	6.6	7.3

그림 4.3.10 음악공연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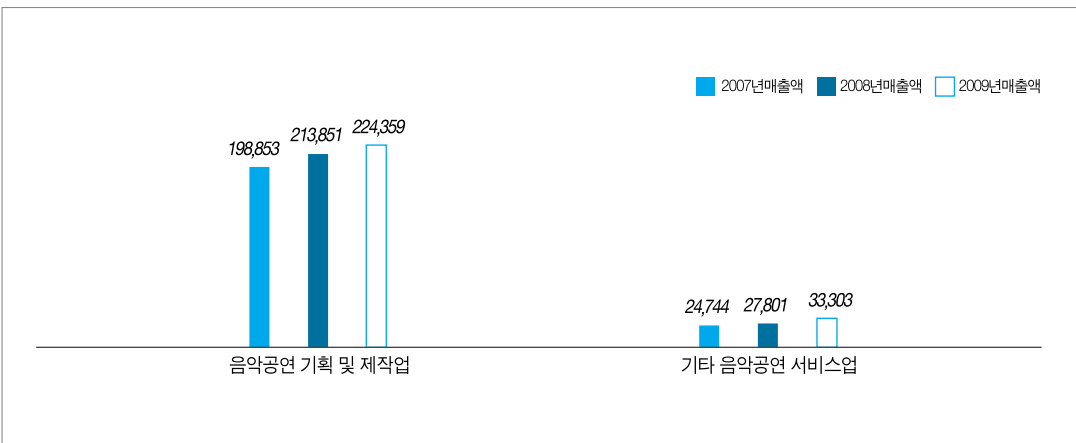


그림 4.3.11 음악 공연업 소분류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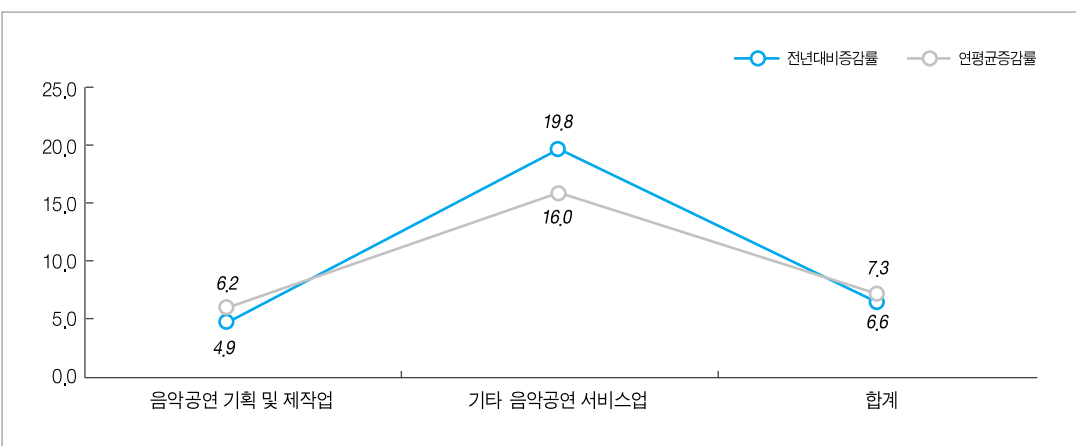


표 4.3.10 음악공연업 장르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클래식	오페라	기타	합계
2007년	128,121	30,856	33,383	11,404	19,833	223,597
2008년	142,807	39,215	36,735	12,056	10,839	241,652
2009년	142,331	43,695	41,132	14,115	16,389	257,662
2009년 비중(%)	55.2	17.0	16.0	5.4	6.4	100.0
전년대비증감률(%)	▽0.3	11.4	12.0	17.1	51.2	6.6
연평균증감률(%)	5.4	19.0	11.0	11.3	▽9.1	7.3

그림 4.3.12 음악공연업 장르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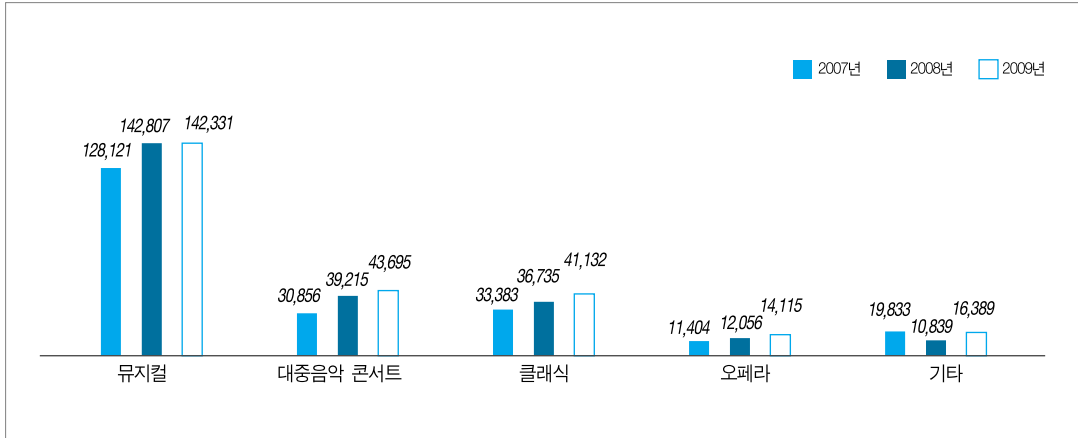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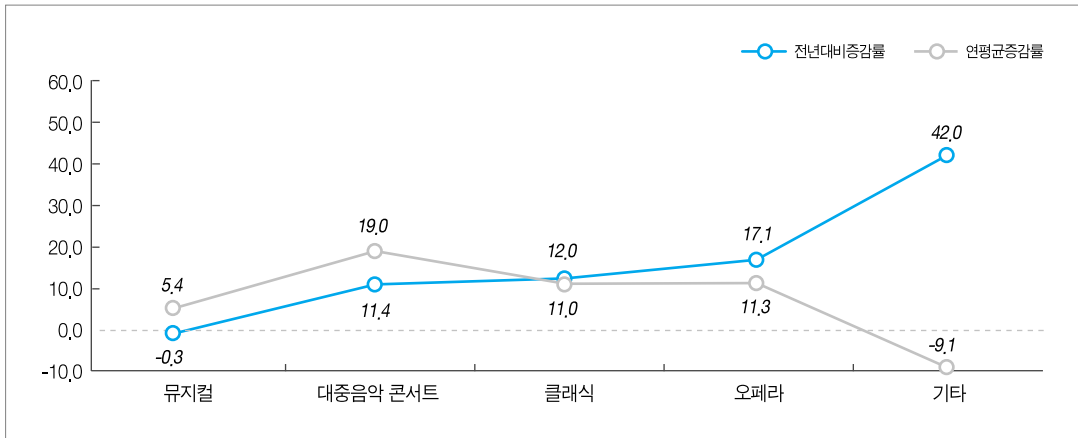


그림 4.3.13 음악공연업 장르별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2.6. 노래연습장 운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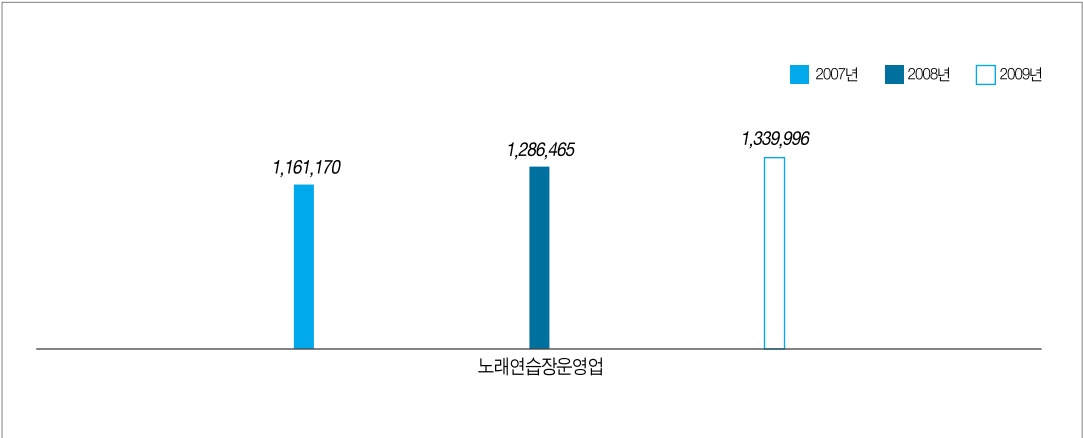
2009년의 노래연습장 운영업 매출액은 1조 3,399억 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7.4%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체수가 2008년 대비 약 547개소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럭셔리 노래연습장의 등장으로 인해 요금이 상대적으로 인상 된 것 또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대비 2008년 상반기에 평균 25% 요금인상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성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럭셔리한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 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에서도 이러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3.11 노래연습장 운영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소분류	매출액(백만원)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노래연습장 운영업	1,161,170	1,286,465	1,339,996	100.0	4.2	7.4
소계	1,161,170	1,286,465	1,339,996	100.0	4.2	7.4

그림 4.3.14 노래연습장 운영업 소분류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3.2.7.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음악산업의 사업형태별 매출액 중 '유통/배급' 매출액은 2조5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4.8%를 차지하였다. '창작 및 제작' 매출액은 3,495억 원으로 12.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매출액은 2,627억 원으로 9.6%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복제' 매출액은 394억 원(1.4%)이며, '제작지원' 매출액은 389억 원(1.4%)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중분류별 매출액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음악산업은 음반과 음원 제작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었지만, 유통배급의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반영하듯, 사업 형태별 매출액도 창작 및 제작과 제작지원, 단순복제는 감소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통/배급과 기타사업의 매출액만이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표 4.3.12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창작 및 제작	제작 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71,693	6,685	2,168	7,697	239,744	327,9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3,265	26,169	1,068	1,139	701	32,342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8,835	-	-	589	-	9,424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436	-	-	240	-	676
음반 복제업	2,106	-	36,215	-	-	38,321
음반 배급업	96	-	-	44,609	-	44,705
음반 도매업	-	-	-	36,655	-	36,655
음반 소매업	-	-	-	63,117	-	63,117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20,267	-	20,267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	76,502	-	76,502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31,695	-	-	321,737	6,537	359,969
음원대리 중개업	1,638	-	-	58,693	-	60,33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21,698	3,256	-	44,190	3,655	72,799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07,138	2,869	-	2,985	11,367	224,359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979	-	-	31,626	698	33,303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1,339,996	-	1,339,996
합계	349,579	38,979	39,451	2,050,042	262,702	2,740,753
비중(%)	12.8	1.4	1.4	74.8	9.6	100.0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연도별로 보면 ‘유통/배급’의 매출액이 2007년에 1조 6,978억 원이었으며 2008년에 1조 8,652억 원이었고, 2009년에 2조 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와 연평균 각각 9.9%씩 증가하여 다른 사업형태별 매출액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가파른 성장 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매출액도 2007년에 2,116억 원에서 2008년에 2,144억 원, 2009년에 2,627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2.5%, 연평균 11.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제작 지원’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0% 감소하였으며, 2009년 매출액이 389억 원으로 2007년 매출액 796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연평균 30.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연간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단순복제’ 매출액의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9.3% 감소하였고, 연평균도 8.3% 감소하였다. ‘창작 및 제작’ 매출액은 2007년에 3,216억 원에서 2008년에 4,307억 원으로 증가한 후에 2009년에 다시 3,495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8%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으나 연평균증감률 보면 4.3% 증가하였다.

표 4.3.13 사업형태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창작 및 제작	제작 지원	단순복제	유통/배급	기타	합계
2007년	321,634	79,697	46,900	1,697,808	211,665	2,357,704
2008년	430,726	48,124	43,511	1,865,246	214,468	2,602,075
2009년	349,579	38,979	39,451	2,050,042	262,702	2,740,753
전년대비증감률(%)	▽18.8	▽19.0	▽9.3	9.9	22.5	5.3
연평균증감률(%)	4.3	▽30.1	▽8.3	9.9	11.4	7.8

그림 4.3.15 음악산업 사업형태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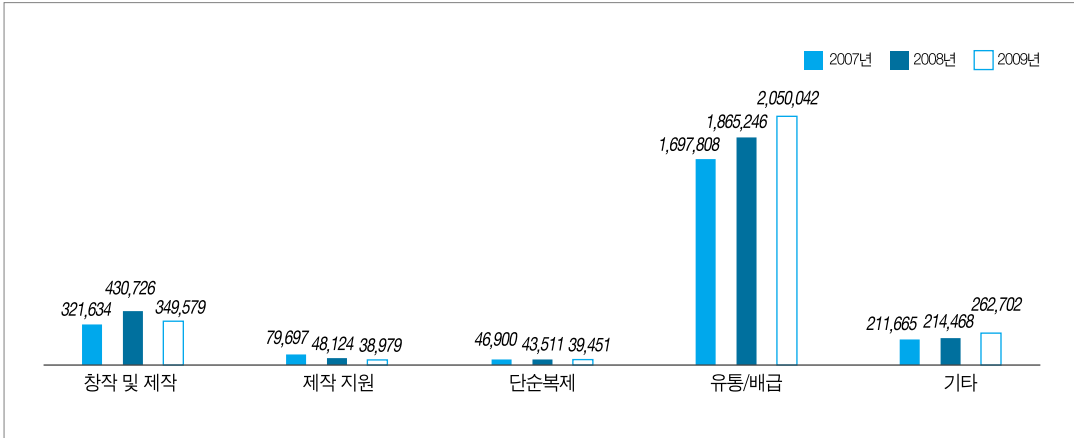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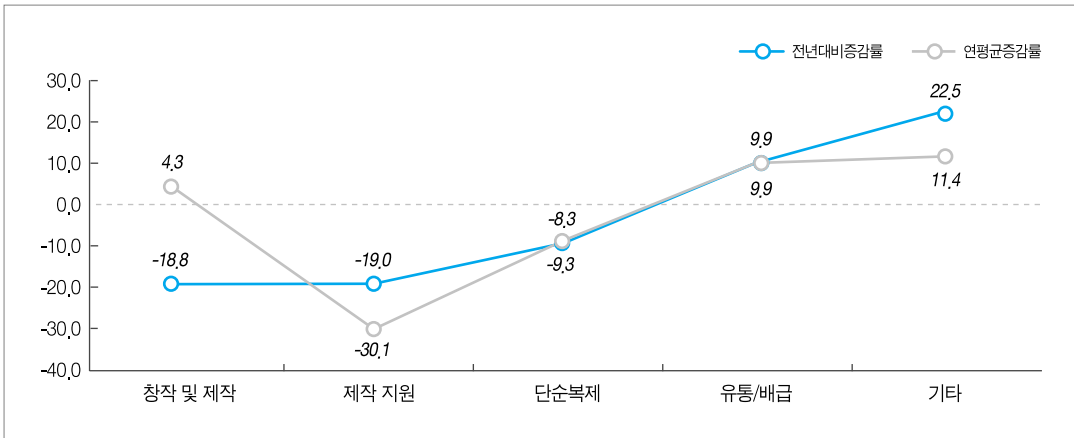


그림 4.3.16 사업형태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2.8.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음악산업 매출액을 사업체들의 매출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 사업체 매출액은 1조 2,68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4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100억 원 이상' 사업체 매출액이 7,66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8.0%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다음은 '10~100억 원 미만' 사업체가 매출액 5,041억 원(18.4%), '1~10억 원 미만' 사업체 2,021억 원(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매출액은 증가하는 한편, '10~100억 원 미만' 규모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1~10억 원 미만' 규모의 매출액은 2008년 대비 증가한편이지만 2007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장기적인 음악시장의 불황이 중·대형업체와 소형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음악시장의 불황이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대형업체는 이에 대응할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어 극복이 가능하지만 소형업체는 장기적 불황에 대응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대형업체보다 불황 때문에 받는 악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14 매출액 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2,068	45,369	133,897	146,653	327,9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503	9,986	21,853	-	32,342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269	2,668	6,487	-	9,424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676	-	-	-	676
음반 복제업	456	1,138	36,727	-	38,321
음반 배급업	-	1,635	15,369	27,701	44,705
음반 도매업	139	3,139	11,698	21,679	36,655
음반 소매업	1,367	11,386	26,958	23,406	63,117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20,267	-	20,267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	76,502	76,502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69	698	9,215	349,987	359,969
음원대리 중개업	56	1,657	27,693	30,925	60,33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752	8,351	41,285	22,411	72,799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369	28,795	126,210	66,985	224,359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152	6,691	26,460	-	33,303
노래연습장 운영업	1,259,367	80,629	-	-	1,339,996
합계	1,268,243	202,142	504,119	766,249	2,740,753
비중(%)	46.2	7.4	18.4	28.0	100.0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이를 연도별로 보면 '100억 원 이상' 규모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2007년에 5,115억 원, 2008년에 6,595억 원, 2009년에 7,662억 원으로 조사되면서 2007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16.2%, 연평균 2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0~100억 원 미만' 규모 사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에 5,280억 원, 2008년에 5,340억 원, 2009년에 5,041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5.6%, 연평균 2.3%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1~10억 원 미만' 사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 2,229억 원, 2008년 1,927억 원으로 감소한 후 2009년에 다시 2,02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4.8% 감소하였다. 한편 '1억 원 미만' 규모 사업체들의 매출액은 2007년에 1조 952억 원에서 2009년에 1조 2,682억 원으로 연평균이 7.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5 매출액 규모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2007년	1,095,224	222,937	528,005	511,538	2,357,704
2008년	1,215,729	192,744	534,021	659,581	2,602,075
2009년	1,268,243	202,142	504,119	766,249	2,740,753
전년대비증감률(%)	4.3	4.9	▽5.6	16.2	5.3
연평균증감률(%)	7.6	▽4.8	▽2.3	22.4	7.8

그림 4.3.17 매출액 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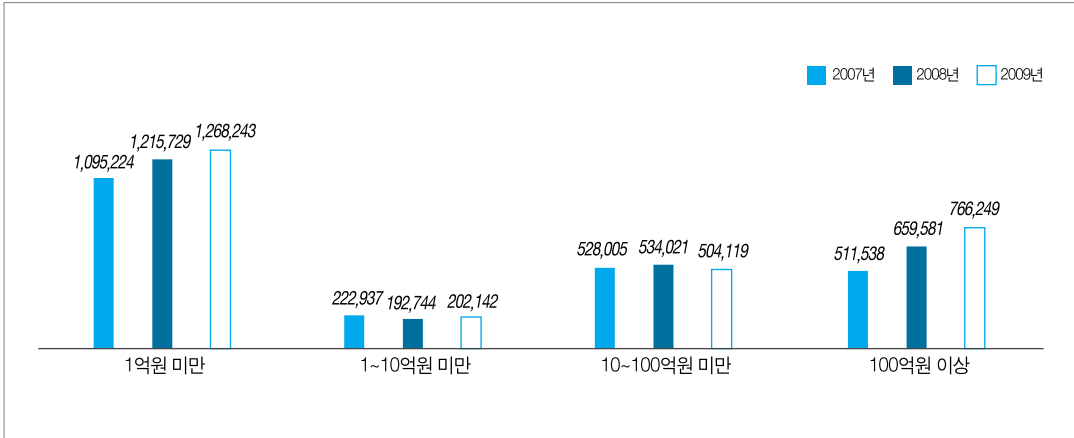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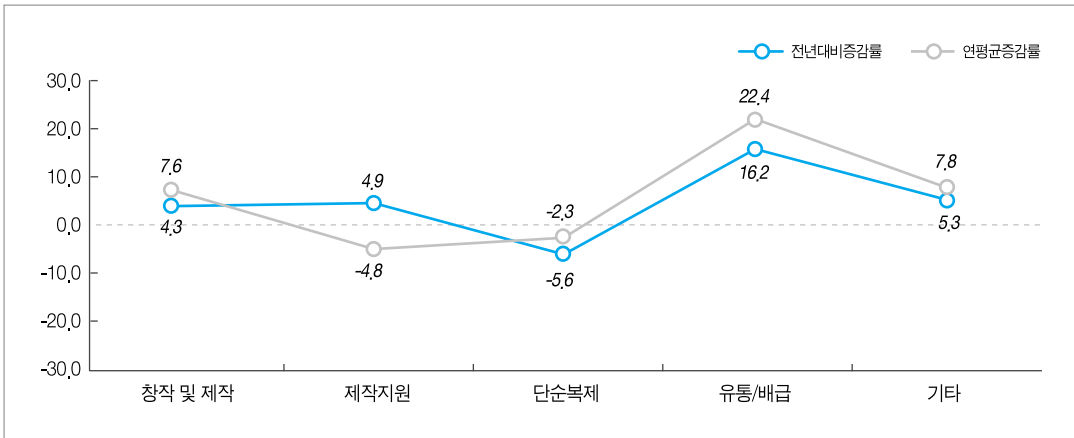


그림 4.3.18 매출액 규모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2.9.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2009년 음악산업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을 보면 '1~4인' 규모 매출액이 1조 4,25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10~49인' 규모 매출액이 5,612억 원 (20.5%), '5~9인' 은 2,696억 원(9.8%), '100인 이상' 은 2,445억 원(8.9%), '50~99인' 은 2,400억 원(8.8%)순으로 나타났다. '1~4인', '100인 이상' 규모의 매출액과 '10~49인' 규모의 매출액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50~99인' 을 비롯한 그 외 규모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4.3.16 종사자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31,696	68,997	144,568	56,368	26,358	327,987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1,063	17,140	4,139	-	-	32,342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4,936	4,488	-	-	-	9,424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676	-	-	-	-	676
음반 복제업	21,387	16,934	-	-	-	38,321
음반 배급업	4,763	5,698	34,244	-	-	44,705
음반 도매업	2,136	9,658	24,861	-	-	36,655
음반 소매업	25,367	11,698	26,052	-	-	63,117
인터넷 음반 소매업*	20,267	-	-	-	-	20,267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76,502	-	-	76,502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263	4,968	51,638	116,369	186,731	359,969
음원대리 중개업	3,167	5,632	51,532	-	-	60,33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6,368	12,257	27,236	16,938	-	72,799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6,892	35,985	89,635	50,367	31,480	224,359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3,693	6,125	23,485	-	-	33,303
노래연습장 운영업	1,262,551	70,052	7,393	-	-	1,339,996
합계	1,425,225	269,632	561,285	240,042	244,569	2,740,753
비중(%)	52.0	9.8	20.5	8.8	8.9	100.0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증감률을 살펴보면 '100인 이상' 규모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31.0%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 매출액으로 보면 2007년에 1,425억 원이며, 2008년 1,685억 원, 그리고 2009년에 2,44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50~99인 규모'의 매출액은 2007년에 2,185억 원에서 2008년에 3,092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2,400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여 전년대비 22.4% 감소한 반면 연평균은 4.8%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10~49인'은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2.9% 증가하였다. '5~9인'은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나 연평균은 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1~4인'은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7.4% 증가하였다.

표 4.3.17 종사자 규모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이상	합계
2007년	1,234,782	231,509	530,242	218,578	142,593	2,357,704
2008년	1,389,080	275,708	459,451	309,274	168,562	2,602,075
2009년	1,425,225	269,632	561,285	240,042	244,569	2,740,753
전년대비증감률(%)	2.6	▽2.2	22.2	▽22.4	45.1	5.3
연평균증감률(%)	7.4	7.9	2.9	4.8	31.0	7.8

그림 4.3.19 종사자 규모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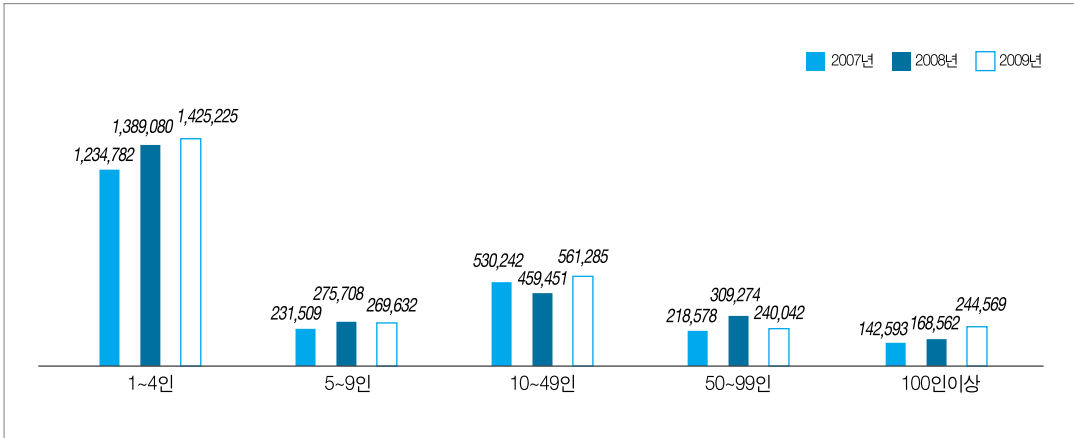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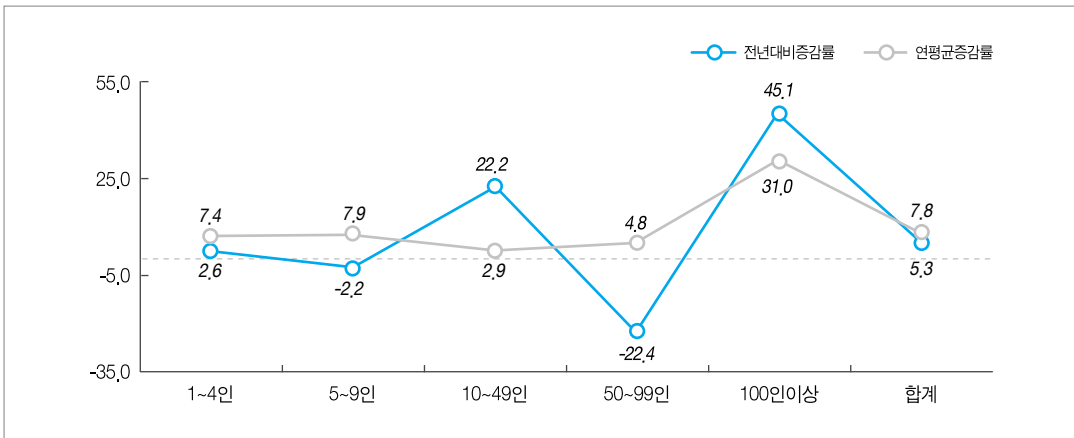


그림 4.3.20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2.10. 지역별 매출액

2009년 음악산업은 매출액의 50.6%인 1조 3,753억 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4,210억 원(15.5%), 부산이 1,184억 원(4.4%), 인천이 1,065억 원(3.9%), 대구가 1,054억 원(3.9%)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은 음악산업 매출액 규모가 1천억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매출액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9개도의 매출액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4.3.18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역	음악제작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 배급/복제/도소매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합계	구성비 (%)
서울	311,799	101,710	525,288	188,240	248,293	1,375,330	50.6
부산	1,598	9,325	6,123	7,493	93,954	118,493	4.4
대구	1,307	6,934	4,936	6,125	86,144	105,446	3.9
인천	1,126	6,363	4,882	5,714	88,434	106,519	3.9
광주	689	5,139	1,725	1,968	47,203	56,724	2.1
대전	588	5,016	1,331	1,693	47,465	56,093	2.1
울산	79	1,753	-	852	41,194	43,878	1.6
경기도	41,369	38,212	25,316	29,946	286,182	421,025	15.5
강원도	253	1,321	-	1,335	44,311	47,220	1.7
충청북도	195	6,925	-	1,266	41,682	50,068	1.8
충청남도	197	1,962	-	1,968	54,938	59,065	2.2
전라북도	123	1,553	-	1,563	38,791	42,030	1.5
전라남도	225	1,611	-	2,187	42,621	46,644	1.7
경상북도	249	2,019	-	2,611	79,873	84,752	3.1
경상남도	151	2,502	-	2,693	85,355	90,701	3.3
제주도	381	553	-	2,008	13,556	16,498	0.6
합계	360,329	192,898	569,601	257,662	1,339,996	2,720,486*	100.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음반 소매업제외)

지역별 매출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은 2007년에 1조 1,922억 원에서 2008년에 1조 2,952억 원, 그리고 2009년에는 1조 3,75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6.2%, 연평균 7.4%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 또한 2007년에 3,519억 원, 2008년에 4,110억 원, 그리고 2009년에 4,210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2.4%, 연평균 9.4% 증가하였다. 한편 인천에서는 2007년 매출액이 884억 원에서 2008년 792억 원, 2009년에 1,065억 원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비하여 약 34.4% 가량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19 연도별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1,192,294	1,295,296	1,375,330	6.2	7.4
부산	115,254	117,990	118,493	0.4	1.4
대구	92,706	104,352	105,446	1.0	6.7
인천	88,478	79,266	106,519	34.4	9.7
광주	49,486	53,644	56,724	5.7	7.1
대전	47,539	54,716	56,093	2.5	8.6
울산	35,321	40,704	43,878	7.8	11.5
경기도	351,924	411,024	421,025	2.4	9.4
강원도	37,753	45,186	47,220	4.5	11.8
충청북도	34,989	47,497	50,068	5.4	19.6
충청남도	43,706	54,582	59,065	8.2	16.3
전라북도	34,413	44,801	42,030	▽6.2	10.5
전라남도	47,602	48,428	46,644	▽3.7	▽1.0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경상북도	74,662	83,432	84,752	1.6	6.5
경상남도	82,860	88,253	90,701	2.8	4.6
제주도	14,800	16,270	16,498	1.4	5.6
합계	2,343,787	2,585,441	2,720,486	5.2	7.7

* 외부인용자료(인터넷음반 소매업)제외

매출액을 6개 광역시와 9개도로 나누어 보면 6개 광역시의 2007년 매출액은 4,287억 원에서 2008년에 4,506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4,871억 원으로 약간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또한 9개도의 2007년 매출액은 7,227억 원, 2008년 8,394억 원, 그리고 2009년에 8,580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3.21 연도별 지역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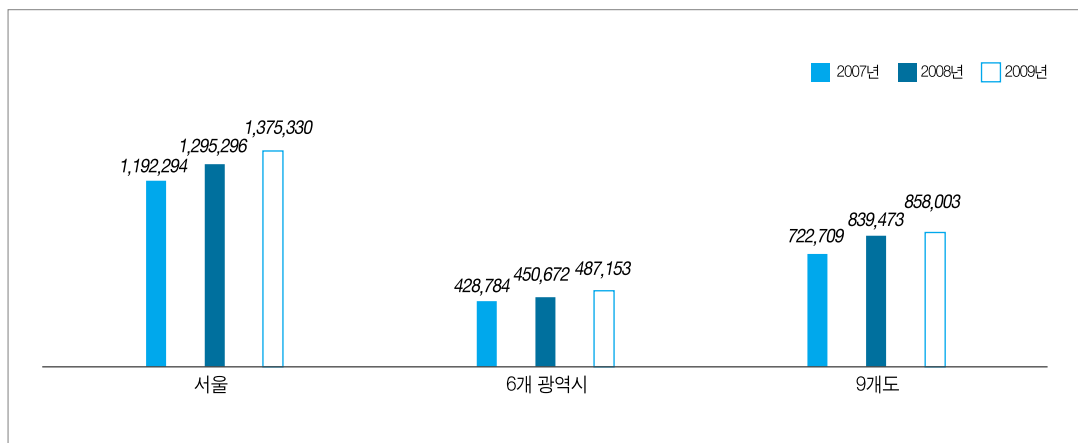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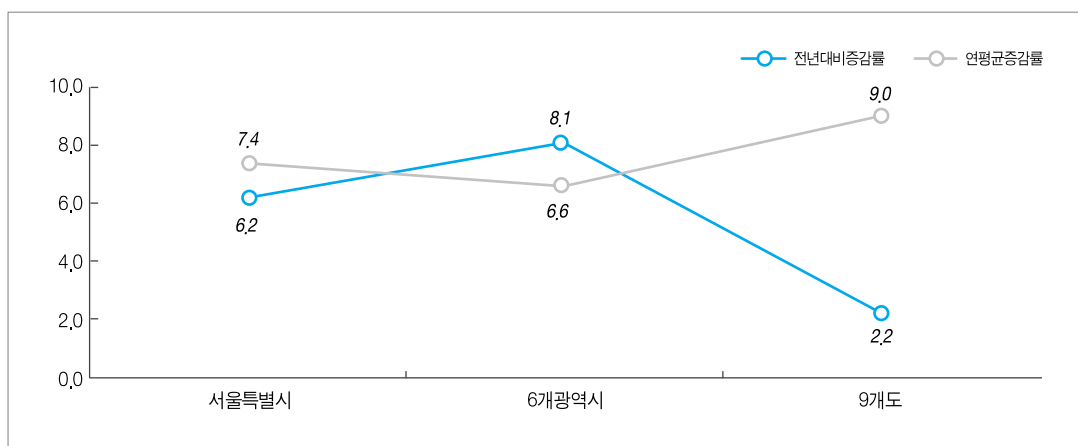


그림 4.3.22 지역별 매출액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3 음악산업 수출입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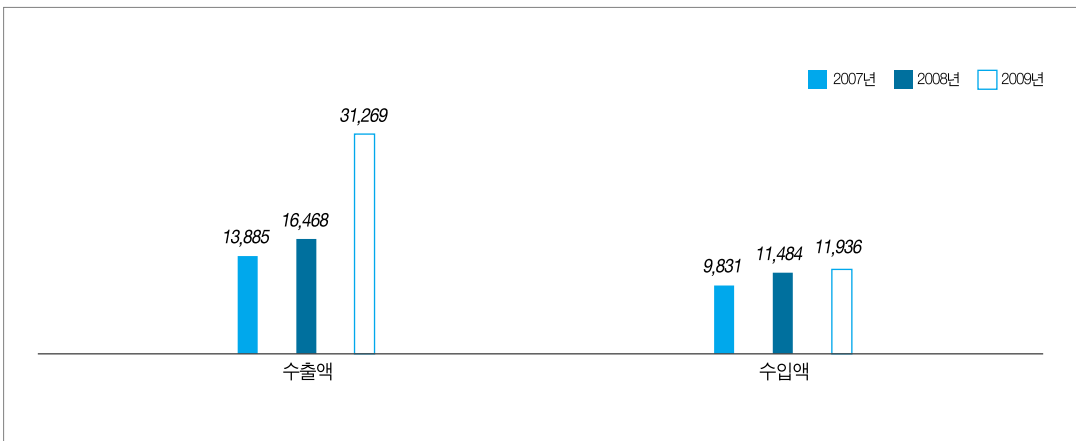
2009년 음악산업의 수출액은 3,126.9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89.9%, 연평균 50.1%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1,193.6만 달러로 전년대비 3.9%, 연평균 10.2%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수출액은 2007년에 1,388.5만 달러에서 2008년에 1,646.8만 달러로 증가한 후 2009년에는 3,126.9만 달러로 추정되어 2007년 수출액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2007년에 983.1만 달러였으며, 2008년에는 1,148.4만 달러, 2009년에는 1,193.6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음악산업의 수출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신(新)한류 또는 한류2.0으로 명명되는 한류 열풍이 음악 수출액 증가에 매우 크며 기여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출 전략의 요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20 음악산업 수출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음악산업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수출	13,885	16,468	31,269	89.9	50.1
수입	9,831	11,484	11,936	3.9	10.2

그림 4.3.23 음악산업 수출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 달러)



3.3.1.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입액 현황¹⁶⁾

음악산업의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수출액은 2,163만 달러로 추정되면서 전체 수출액의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동남아 641만 달러(20.5%), 중국은 236만 달러(7.6%) 등의 수출액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북미 지역이 35만 달러(1.1%), 유럽지역 29만 달러(1.0%), 기타지역 20만 달러(0.6%)로 전체 수출액 비중의 2.0% 넘지 못하면서 주요 수출국가에 대한 비중이 더욱 높아지지만 그 외 기타 국가들의 수출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6) 지역별 수출 및 수입액 연평균증감률은 2007년~2009년

연도별로 보면 동남아 지역의 수출액이 2007년에 206만 달러, 2008년에 256만 달러, 2009년에 641만 달러로 나타나 전년대비 149.6% 라는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연평균증감률 또한 76.4% 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동남아 지역이 국내 음악 수출의 주요 대상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로 앞으로 동남아 지역으로의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액을 보면 2007년에 943만 달러, 2008년에 1,121만 달러, 2009년에 2,163만 달러로 가파른 성장 폭을 보이고 있다. 증감률로 보면 전년대비 92.9%, 연평균 5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출액 또한 전년대비 28.5% 증가하였고, 연평균 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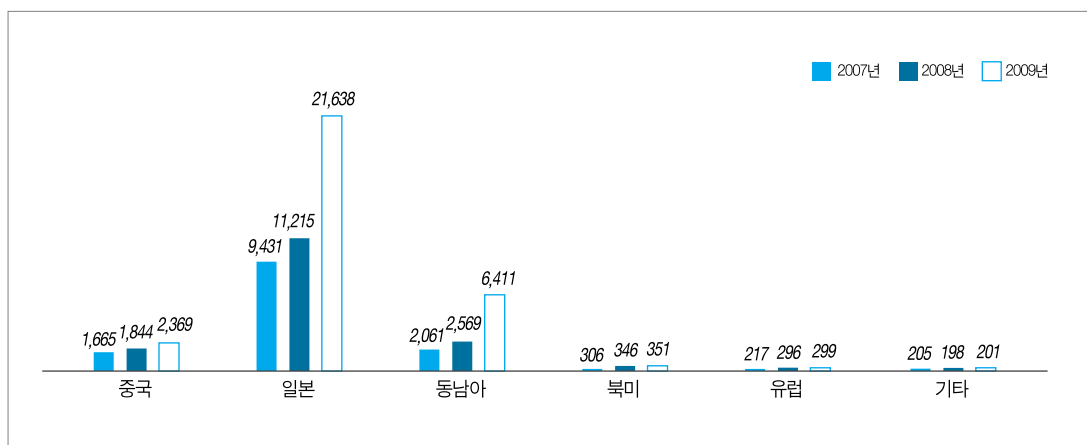
새로운 한류의 영향으로 일본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한류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과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기가 대부분이었으나 새로운 한류 열풍이 10대와 20대를 아우르고 있어 연령대가 더 젊어지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드라마를 통한 한류가 주를 이루었다면 2010년에는 국내 가요나 뮤지컬 등을 통한 한류로 그 맥이 점차 확대되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가수 소녀시대의 쇼케이스는 일본에서 매우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으며, 인기가수 카라 등과 같은 아이돌 스타들의 진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호감과 관심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며 한국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4.3.21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중국	1,665	1,844	2,369	7.6	28.5	19.3
일본	9,431	11,215	21,638	69.2	92.9	51.5
동남아	2,061	2,569	6,411	20.5	149.6	76.4
북미	306	346	351	1.1	1.4	7.1
유럽	217	296	299	1.0	1.0	17.4
기타	205	198	201	0.6	1.5	▽1.0
전체	13,885	16,468	31,269	100.0	89.9	50.1

* 지역별 수출 및 수입액 연평균증감률은 2007년~2009년

그림 4.3.24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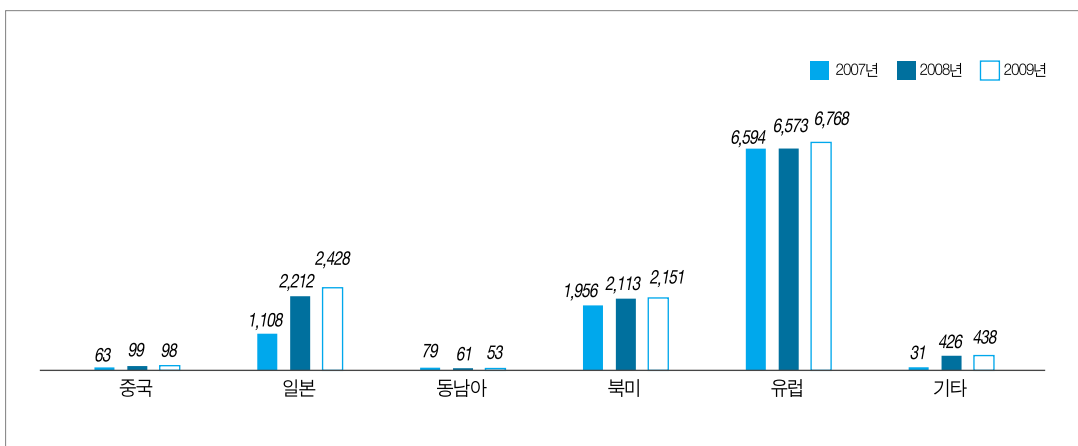
음악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유럽으로 수입액은 676만 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수출액의 56.7%를 차지하였다. 일본 수입액은 242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0.3%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북미는 215만 달러로 18.0%의 비중을 보였다. 그 외 다른 지역을 보면 기타 지역이 43.8만 달러(3.7%), 중국이 9만 달러(0.8%), 동남아 지역이 5만 달러(0.4%)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일본음악의 수입이 2007년에 110만 달러이며, 2008년에 221만 달러, 2009년에 242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9.8%, 연평균 48.0% 증가하였다. 유럽음악의 수입은 2007년에 659만 달러에서 2008년에 비슷한 수준인 657만 달러, 2009년에 676만 달러로 조사되어 전년대비 3.0%, 연평균 1.3%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미음악의 수입액은 2007년에 195만 달러에서 2009년에 215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1.8%, 연평균 4.9%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22 음악산업의 지역별 수입액 현황 (단위: 천달러,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중국	63	99	98	0.8	▽1.0	24.7
일본	1,108	2,212	2,428	20.3	9.8	48.0
동남아	79	61	53	0.5	▽13.1	▽18.1
북미	1,956	2,113	2,151	18.0	1.8	4.9
유럽	6,594	6,573	6,768	56.7	3.0	1.3
기타	31	426	438	3.7	2.8	275.9
전체	9,831	11,484	11,936	100.0	3.9	10.2

그림 4.3.25 음악산업의 지역별 수입액 현황 (단위: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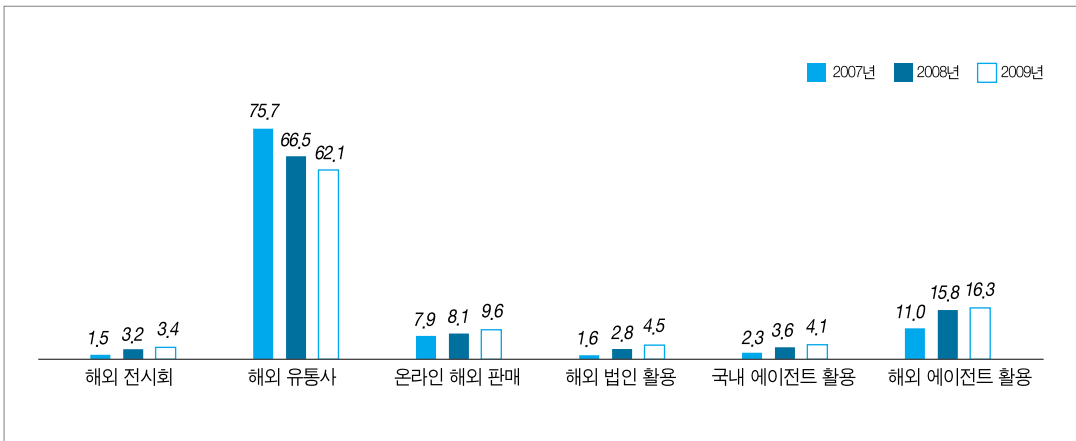
3.3.2. 음악산업 해외 수출방식

음악산업의 해외 수출방식은 ‘해외 유통사’를 접촉한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7년에 75.7%에서 점차 감소한 비중이지만 2009년에도 여전히 해외 유통사를 통한 해외 수출이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 에이전트 활용’은 16.3%이며, 2007년에 11.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온라인 해외 판매’ 9.6%, ‘해외 법인 활용’ 4.5%, ‘국내에이전트 활용’ 4.1%, ‘해외 전시회 및 행사참여’ 3.4%로 순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간접 수출의 비중은 2007년에 13.3%에서 2008년에 19.4%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2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3 음악산업 해외 수출방식 (단위: %, %P)

수출방법	진출 경로 구분	2007년 기준조사	2008년 기준조사	2009년 기준조사	전년대비 증감(%P)
직접 수출	해외 전시회 및 행사참여	1.5	3.2	3.4	0.2
	해외 유통사 접촉	75.7	66.5	62.1	▽4.4
	온라인 해외 판매	7.9	8.1	9.6	1.5
	해외 법인 활용	1.6	2.8	4.5	1.7
간접 수출	국내 에이전트 활용	2.3	3.6	4.1	0.5
	해외 에이전트 활용	11.0	15.8	16.3	0.5
합계		100.0	100.0	100.0	-

그림 4.3.26 음악산업 해외 수출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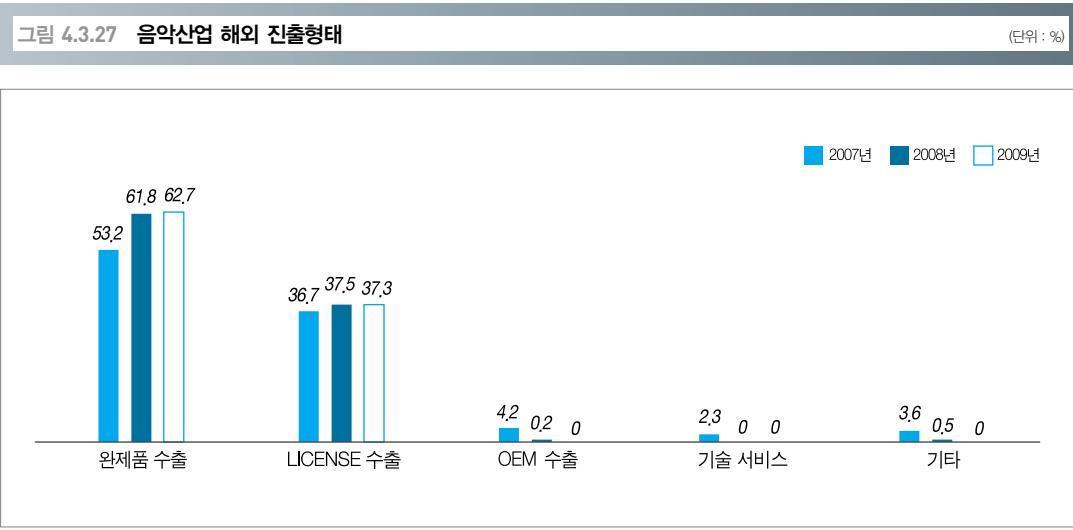


3.3.3. 음악산업 해외 진출형태

음악산업의 해외 진출형태는 ‘완제품 수출’이 62.7%였으며, ‘LICENSE’는 37.3%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완제품 수출’과 ‘LICENSE’, ‘OEM 수출’, ‘기술 서비스’, ‘기타 수출’에 응답이 분포되어 있었으나 2008년을 거치며 2009년에는 ‘완제품 수출’과 ‘LICENSE 수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24 음악산업 해외 진출형태 (단위: %, %P)

해외진출형태	2007년 기준조사	2008년 기준조사	2009년 기준조사	전년대비 증감(%P)
원제품 수출	53.2	61.8	62.7	0.9
LICENSE	36.7	37.5	37.3	▽0.2
OEM 수출	4.2	0.2	-	-
기술 서비스	2.3	-	-	-
기타	3.6	0.5	-	-
합계	100.0	100.0	100.0	-



3.4 음악산업 종사자 현황

2009년 음악산업 전체 종사자는 7만6,539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중분류별로 보면 '노래연습장 운영업' 종사자가 6만7,891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 공연업' 종사자는 2,62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음악 유통업' 종사자는 2,479명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음악제작업' 종사자는 2,429명으로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반 도소매업' 종사자는 753명으로 1.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음반 배급 및 복제업'은 278명이며, 비중은 0.4%였고,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은 81명이며 비중은 0.1%로 나타나 중분류 중 가장 적은 수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분류에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음악 공연업'은 유일하게 2007년에 2,095명에서 2008년에 2,533명, 2009년에 2,628명으로 큰 폭의 증가

율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2.0% 증가한 수치이다. 감소하는 분류 중 특히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이 전년대비 17.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음반복제 및 배급업’ 또한 전년대비 11.7% 감소하여 비교적 큰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 제작업’은 2007년에 2,797명에서 2008년에 2,463명, 그리고 2009년에 2,429명으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1.4%, 연평균 6.8% 감소하였다. ‘음반 도소매업’은 2007년에 883명이었고, 2008년에 807명, 2009년에 753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6.7%, 연평균 7.7%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2007년에 2,468명에서 2008년에 2,648명으로 증가한 후 2009년에 2,479명으로 감소하여 2007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률을 보면 전년대비 6.4% 감소하였고, 연평균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증가한 소분류의 종사자 또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과 ‘음원대리 중개업’의 종사자 증가 폭은 큰 편이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종사자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공연 기획 및 제작업’과 ‘기타 음악 공연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도 증가하였고 그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연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음반제작업체는 지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점점 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양질의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기관이 필요할 것이며 양질의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정부차원에서의 제도 등이 향후 음악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요요소가 될 것이다.

중분류	소분류		종사자(명)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음반 및 음원	539	567	572	0.7	0.9	3.0
		음반외수익 (음악관련)	1,256	1,287	1,362	1.8	5.8	4.1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002	609	495	0.6	▽18.7	▽29.7
	소계		2,797	2,463	2,429	3.2	▽1.4	▽6.8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	82	68	0.1	▽17.1	-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16	13	0.0	▽18.8	-
	소계		-	98	81	0.1	▽17.3	-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	166	147	0.2	▽11.4	-
	음반 배급업**		-	149	131	0.2	▽12.1	-
	소계		-	315	278	0.4	▽11.7	-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762	651	159	0.2	▽9.1	▽11.9
	음반 소매업				433	0.6		
	인터넷 음반 소매업***		121	156	161	0.2	3.2	15.4
	소계		883	807	753	1.0	▽6.7	▽7.7
온라인 음악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49	132	115	0.2	▽12.9	▽12.1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021	1,165	1,469	1.9	26.1	19.9
	음원대리 중개업		73	106	163	0.2	53.8	49.4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1,225	1,245	732	1.0	▽41.2	▽22.7
	소계		2,468	2,648	2,479	3.2	▽6.4	0.2

중분류	소분류	종사자(명)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07년	2008년	2009년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017	2,325	2,412	3.2	3.7	9.4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등)	78	208	216	0.3	3.8	66.4
	소계	2,095	2,533	2,628	3.4	3.8	12.0
종합계 ****		8,243	8,864	8,648	11.3	▽2.4	2.4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66,784	57,611	67,891	88.7	17.8	0.8
	소계	66,784	57,611	67,891	88.7	17.8	0.8
음악산업 합계		75,027	66,475	76,539	100.0	15.1	1.0

* 2008년 기준조사에서는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과 복제업이 분리됨
 ** 2008년 기준조사 음반 도소매업에서 배급업 분리됨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 2006, 2007년 종사자는 음반매출외(음악관련) 종사자 및 음악공연 종사자 포함

그림 4.3.28 음악산업 중분류별 종사자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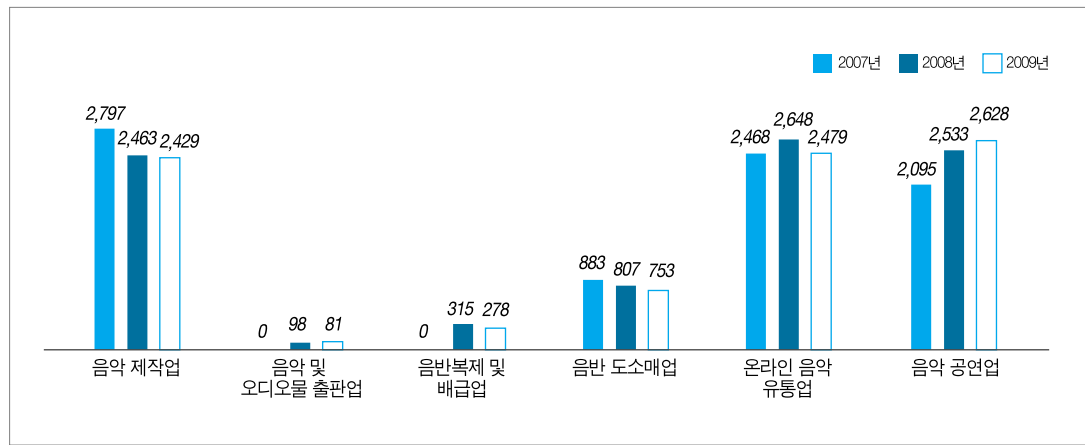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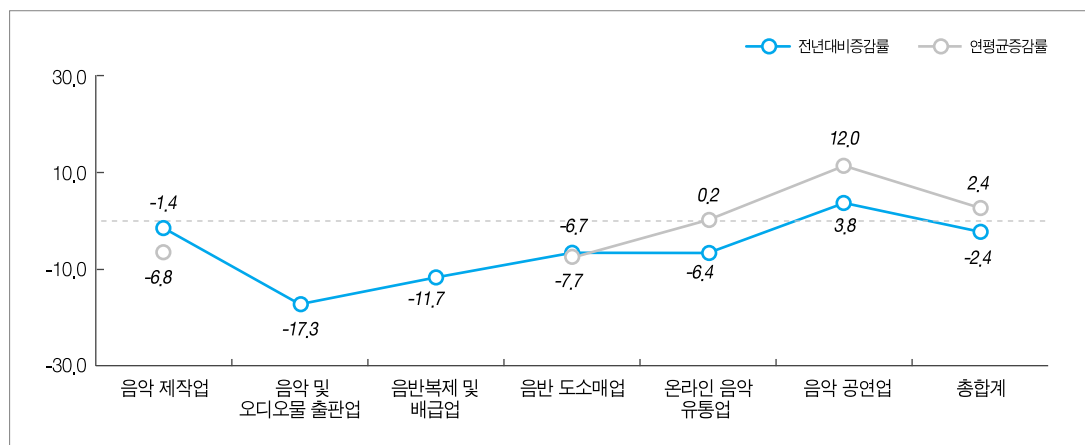


그림 4.3.29 음악산업 중분류별 종사자수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



3.4.1.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현황

2009년 음악산업 종사자는 '1억 원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6만4,367명으로 전체 음악산업 종사자의 가장 높은 비중인 84.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1~10억 원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5,509명(7.2%), '10~100억 원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는 3,981명(5.2%), '100억 원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682명(3.5%)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00억 원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7년에 2,068명에서 2008년에 2,369명, 그리고 2009년에 2,682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3.2%, 연평균 13.9%를 하고 있다. '10~100억 원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는 2008년에 4,504명에서 2009년에 3,981명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하였지만 2007년에 3,259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연평균은 10.5% 증가하였다. '1~10억 원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007년에 4,968명에서 2008년에 3,713명, 2009년에 5,509명으로 전년대비 48.4% 증가하였고, 연평균 5.3%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1억 원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008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지만 2007년보다는 감소하여 전년대비 15.2% 증가한 반면 연평균은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종사자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10~100억 원 미만' 규모를 비롯한 다른 규모의 종사자 감소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형 업체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신규 인력이 창출하였으나, 반대로 소형 업체의 매출액 감소는 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26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76	491	911	456	1,934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2	168	315	-	495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5	26	37	-	6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13	-	-	-	13
음반 복제업	7	16	124	-	147
음반 배급업	-	20	53	58	131
음반 도매업	2	26	65	66	159
음반 소매업	121	117	97	98	433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161	-	161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	115	11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3	12	76	1,378	1,469
음원대리 중개업	1	14	69	79	163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1	93	512	116	732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56	621	1,419	316	2,41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5	69	142	-	216
노래연습장 운영업	64,055	3,836	-	-	67,891
합계	64,367	5,509	3,981	2,682	76,539
비중(%)	84.1	7.2	5.2	3.5	100.0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표 4.3.27 매출액 규모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억원 미만	1~10억원 미만	10~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합계
2007년	64,732	4,968	3,259	2,068	75,027
2008년	55,889	3,713	4,504	2,369	66,475
2009년	64,367	5,509	3,981	2,682	76,539
전년대비증감률(%)	15.2	48.4	▽11.6	13.2	15.1
연평균증감률(%)	▽0.3	5.3	10.5	13.9	1.0

그림 4.3.30 매출액 규모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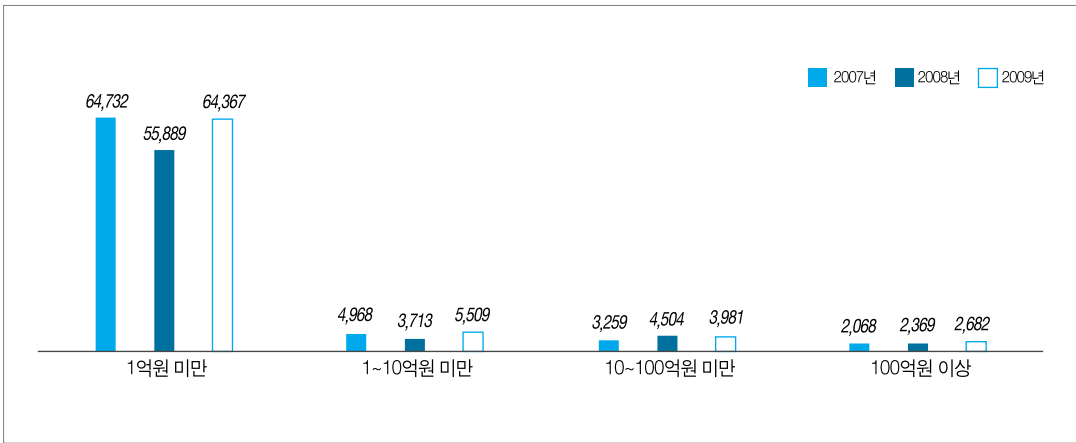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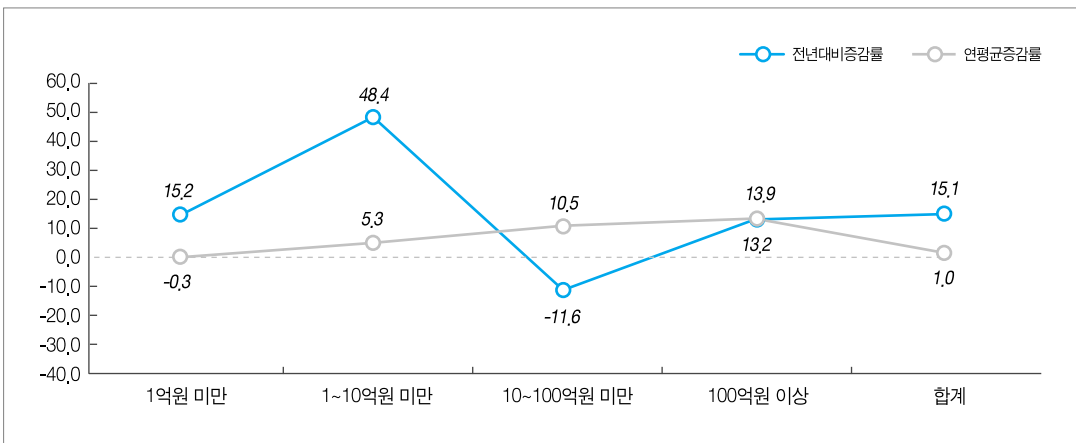


그림 4.3.31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2.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2009년 음악산업은 '1~4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6만2,290명으로 전체 음악산업 종사자의 81.4%를 차지하여 다른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 보다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5~9인' 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8,092명으로 10.6%를 차지하였으며, '10~49인' 은 3,681명으로 4.8%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50~99인' 이 1,320명으로 1.7%, '100인 이상' 은 1,156명으로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0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는 2007년에 857명에서 2008년에 905명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다시 1,156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7.7%, 연평균 1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0~99인' 은 2007년에 1,576명에서 2008년에 1,602명으로 증가 후 2009년에 다시 1,320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17.6%, 연평균 8.5%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10~49인' 은 전년대비 9.7% 증가하였으나 연평균은 0.3% 감소하였다. '5~9인' 은 또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으나 연평균은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4인' 은 전년대비 17.5%, 연평균 1.4% 증가하였다. 음악산업의 경우 '100인 이상' 규모의 종사자는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28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음악기획 및 제작업	343	498	699	228	166	1,934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231	195	69	-	-	495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47	21	-	-	-	6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13	-	-	-	-	13
음반 복제업	106	41	-	-	-	147
음반 배급업	18	19	94	-	-	131
음반 도매업	12	38	109	-	-	159
음반 소매업	257	113	63	-	-	433
인터넷 음반 소매업*	161	-	-	-	-	161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	-	115	-	-	11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5	35	389	462	578	1,469
음원대리 중개업	19	26	118	-	-	163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121	116	427	68	-	732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53	374	911	562	412	2,41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33	54	129	-	-	216
노래연습장 운영업	60,771	6,562	558	-	-	67,891
합계	62,290	8,092	3,681	1,320	1,156	76,539
비중(%)	81.4	10.6	4.8	1.7	1.5	100.0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통계청)

표 4.3.29 종사자 규모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4인	5~9인	10~49인	50~99인	100인 이상	합계
2007년	60,572	8,317	3,705	1,576	857	75,027
2008년	52,995	7,618	3,355	1,602	905	66,475
2009년	62,290	8,092	3,681	1,320	1,156	76,539
전년대비증감률(%)	17.5	6.2	9.7	▽17.6	27.7	15.1
연평균증감률(%)	1.4	▽1.4	▽0.3	▽8.5	16.1	1.0

그림 4.3.32 종사자 규모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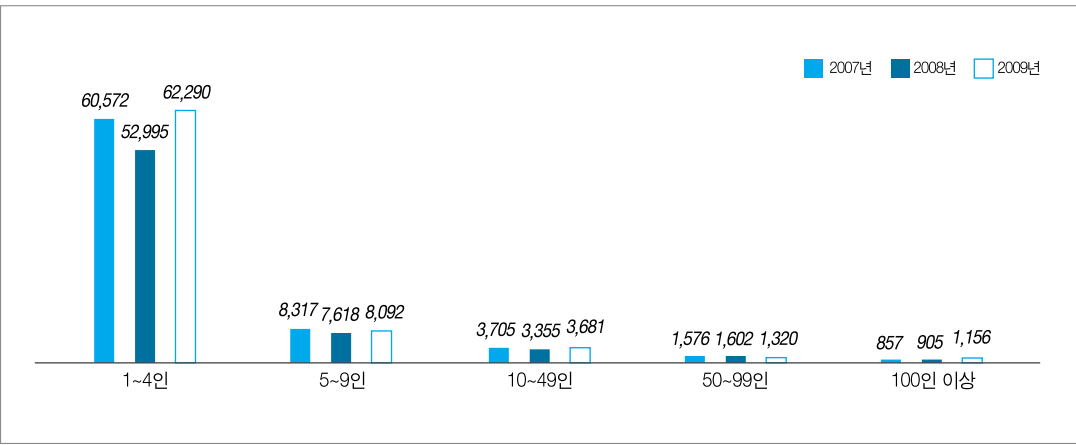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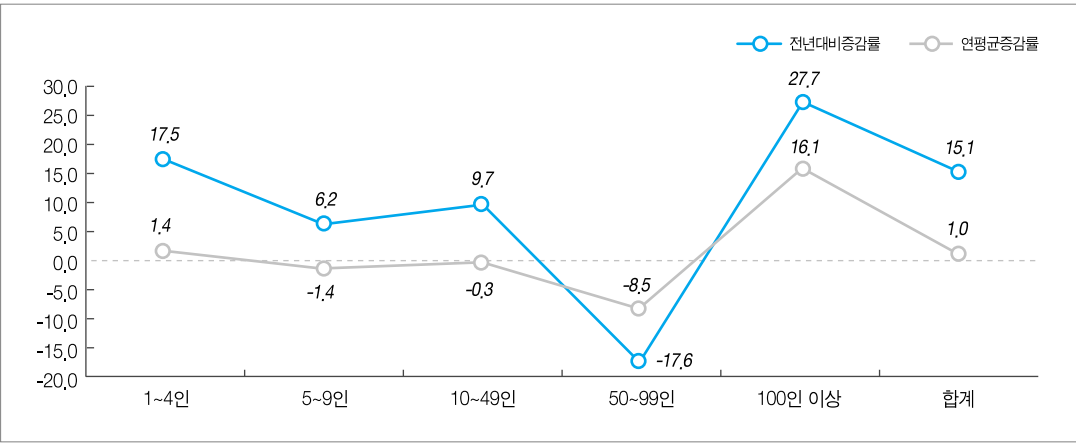


그림 4.3.33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3. 지역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 전체 종사자 중 서울에 1만 8,91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종사자의 2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를이어 경기도는 1만 5,479명(20.3%), 부산은 4,971명(6.5%), 인천이 4,650명(6.0%), 대구가 4,532명(5.9%), 경남이 4,426명(5.8%), 마지막으로 경북이 4,126명(5.4%)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기타 지역 종사자의 비중은 4.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매출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종사자 또한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문화 콘텐츠 양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향후 문화산업 종사자의 지역 분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3.30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지역	음악제작업	음악오디오품 출판업/ 음반배급/복제/도소매	온라인음악 유통업	음악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합계	구성비 (%)
서울	2,009	397	2,162	1,762	12,580	18,910	24.8
부산	14	51	41	105	4,760	4,971	6.5
대구	13	47	31	77	4,364	4,532	5.9
인천	11	46	36	76	4,481	4,650	6.0
광주	8	32	28	24	2,392	2,484	3.3
대전	5	31	18	21	2,405	2,480	3.2
울산	2	11	-	10	2,087	2,110	2.8
경기도	331	178	163	308	14,499	15,479	20.3
강원도	5	12	-	13	2,245	2,275	3.0
충청북도	3	50	-	16	2,112	2,181	2.9
충청남도	3	13	-	25	2,783	2,824	3.7
전라북도	3	14	-	19	1,965	2,001	2.6
전라남도	4	18	-	25	2,159	2,206	2.9
경상북도	7	17	-	55	4,047	4,126	5.4
경상남도	6	26	-	69	4,325	4,426	5.8
제주도	5	8	-	23	687	723	0.9
합계	2,429	951	2,479	2,628	67,891	76,378*	100.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연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07년 1만 9,469명에서 2008년에 1만 7,423명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1만 8,91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은 1.4% 감소한 수치이다. 지역별 종사자를 6개 광역시와 9개도로 나누어 보면 먼저 6개 광역시는 2007년에 2만 1,444명에서 2008년에 1만 7,192명으로 감소한 후 2009년에 2만 1,227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고, 연평균은 0.5% 감소한 수치이다. 9개도는 2007년에 3만 3,993명에서 2008년에 3만 1,704명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3만 6,241명으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면서 전년대비 14.3%, 연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31 연도별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19,469	17,423	18,910	8.5	▽1.4
부산	5,463	4,404	4,971	12.9	▽4.6
대구	4,535	3,976	4,532	14.0	0.0
인천	4,496	2,898	4,650	60.5	1.7
광주	2,556	2,055	2,484	20.9	▽1.4
대전	2,431	2,130	2,480	16.4	1.0
울산	1,963	1,729	2,110	22.0	3.7
경기도	14,063	13,750	15,479	12.6	4.9
강원도	2,120	1,928	2,275	18.0	3.6
충청북도	1,478	1,817	2,181	20.0	21.5
충청남도	2,381	2,296	2,824	23.0	8.9
전라북도	1,868	1,895	2,001	5.6	3.5
전라남도	2,594	2,034	2,206	8.5	▽7.8
경상북도	4,127	3,572	4,126	15.5	0.0
경상남도	4,623	3,781	4,426	17.1	▽2.2
제주도	739	631	723	14.6	▽1.1
합계	74,906	66,319	76,378	15.2	1.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그림 4.3.34 지역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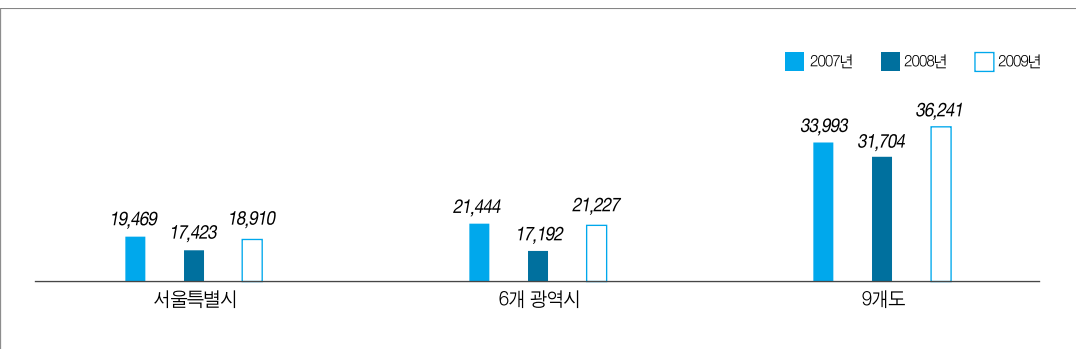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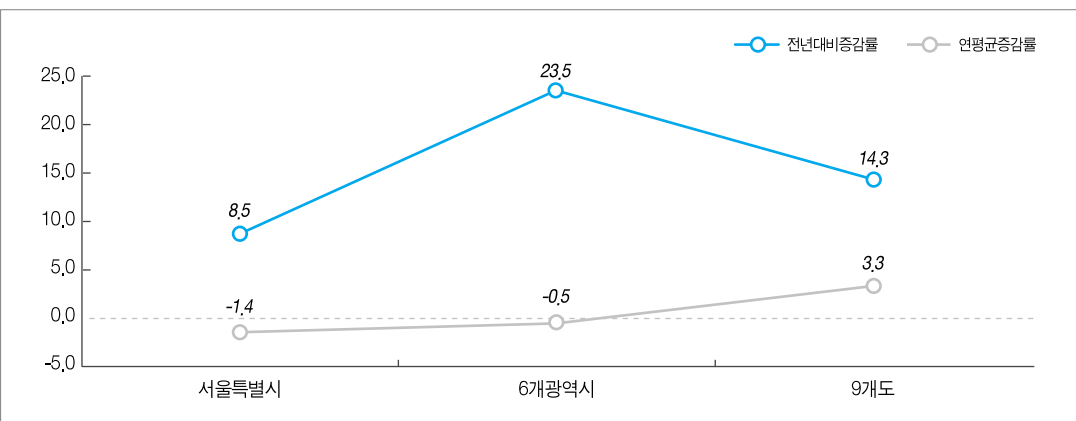


그림 4.3.35 지역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4.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의 정규직 종사자는 5만 7,261명(75.0%)이며, 비정규직 종사자는 1만 9,117명(25.0%)으로 나타났다. 중분류별로 보면 ‘음악제작업’ 정규직은 2,127명이며, 비정규직은 302명이었고,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정규직은 69명이며, 비정규직은 12명으로 조사되었다. ‘음반 배급 및 복제업’ 정규직은 217명이며, 비정규직은 61명, ‘음반 도소매업’ 정규직은 527명, 비정규직 65명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 정규직은 2,093명, 비정규직은 386명, ‘음악공연업’ 정규직은 2,127명이며 비정규직은 501명, ‘노래연습장 운영업’ 정규직은 5만 101명이며 비정규직은 1만 7,790명으로 조사되었다.

음악산업 종사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연도별로 보면 정규직은 2007년에 5만 6,052명에서 2008년에 4만 9,82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5만 7,261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9%, 연평균 1.1%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에 1만 8,854명에서 2008년에 1만 6,495명, 그리고 2009년에 1만 9,117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15.9%, 연평균 0.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분류	소분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1,695	239	1,934
	소분류 비중(%)	87.6	12.4	100.0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432	63	495
	소분류 비중(%)	87.3	12.7	100.0
	소계	2,127	302	2,429
	중분류 비중(%)	87.6	12.4	100.0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58	10	68
	소분류 비중(%)	85.3	14.7	100.0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11	2	13
	소분류 비중(%)	84.6	15.4	100.0
	소계	69	12	81
	중분류 비중(%)	85.2	14.8	100.0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130	17	147
	소분류 비중(%)	88.4	11.6	100.0
	음반 배급업	87	44	131
	소분류 비중(%)	66.4	33.6	100.0
	소계	217	61	278
	중분류 비중(%)	78.1	21.9	100.0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29	30	159
	소분류 비중(%)	81.1	18.9	100.0
	음반 소매업	398	35	433
	소분류 비중(%)	91.9	8.1	100.0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소분류 비중(%)	-	-	-
	소계	527	65	592
	중분류 비중(%)	89.0	11.0	100.0

중분류	소분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온라인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97	18	115
	소분류 비중(%)	84.3	15.7	100.0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181	288	1,469
	소분류 비중(%)	80.4	19.6	100.0
	음원대리 중개업	122	41	163
	소분류 비중(%)	74.8	25.2	100.0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693	39	732
	소분류 비중(%)	94.7	5.3	100.0
	소계	2,093	386	2,479
	중분류 비중(%)	84.4	15.6	100.0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951	461	2,412
	소분류 비중(%)	80.9	19.1	100.0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 등)	176	40	216
	소분류 비중(%)	81.5	18.5	100.0
	소계	2,127	501	2,628
중분류 비중(%)	80.9	19.1	100.0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50,101	17,790	67,891
	중분류 비중(%)	73.8	26.2	100.0
음악산업 총합계**		57,261	19,117	76,378
음악산업 비중(%)		75.0	25.0	100.0

*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자료인용(종사자 현황 자료없음)
 ** 인터넷 음반 소매업 종사자 제외 합계

표 4.3.33 연도별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2007년	56,052	18,854	74,906
2008년	49,824	16,495	66,319
2009년	57,261	19,117	76,378
전년대비증감률(%)	14.9	15.9	15.2
연평균증감률(%)	1.1	0.7	1.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그림 4.3.36 연도별 고용형태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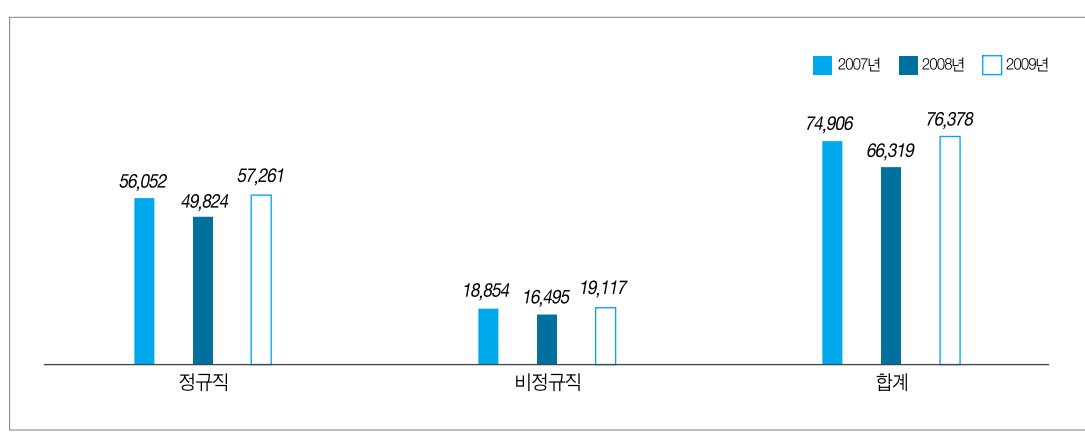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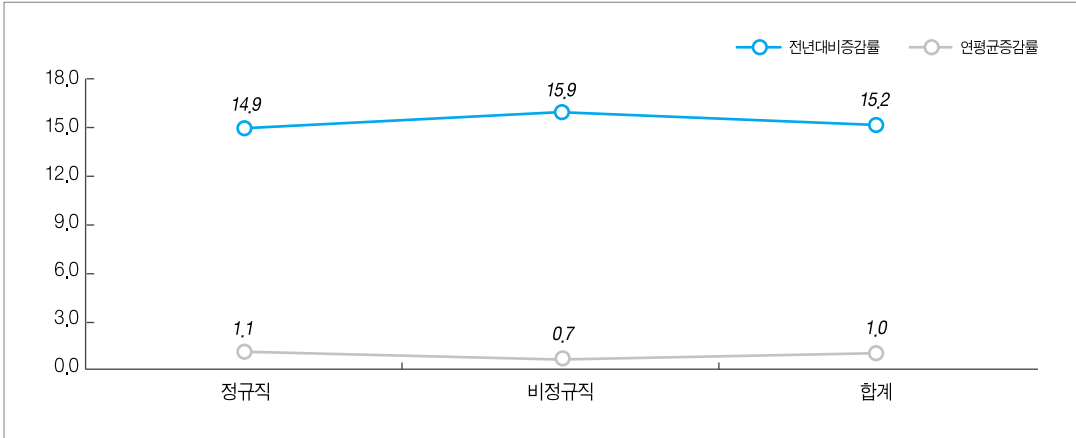


그림 4.3.37 고용형태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5.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의 정규직 남자는 3만 3,855명으로 전체의 4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여자는 2만 3,406명으로 30.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남자는 9,079명(1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여자는 1만 38명(13.1%)으로 나타났다. 중분류별로 보면 음악제작업 정규직 남자는 1,413명이며, 정규직 여자는 714명이었고, 비정규직 남자와 비정규직 여자는 동일한 151명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의 정규직 남자는 1,258명이며, 비정규직 여자는 835명, 비정규직 남자는 249명, 비정규직 여자는 137명으로 나타났다.

표 4.3.34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중분류	소분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1,106	589	113	126	1,934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307	125	38	25	495
	소계	1,413	714	151	151	2,42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43	15	8	2	6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8	3	1	1	13
	소계	51	18	9	3	81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97	33	8	9	147
	음반 배급업	74	13	12	32	131
	소계	171	46	20	41	278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84	45	18	12	159
	음반 소매업	242	156	16	19	433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	-
	소계	326	201	34	31	592
온라인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76	21	15	3	11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667	514	175	113	1,469
	음원대리 중개업	74	48	23	18	163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441	252	36	3	732
	소계	1,258	835	249	137	2,479

종분류	소분류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995	956	264	197	2,41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티켓발매등)	90	86	21	19	216
	소계	1,085	1,042	285	216	2,628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29,551	20,550	8,331	9,459	67,891
	소계	29,551	20,550	8,331	9,459	67,891
음악산업 총합계**		33,855	23,406	9,079	10,038	76,378
비중(%)		44.3	30.7	11.9	13.1	100.0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종사자 현황 자료없음)

** 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합계

이를 연도별로 보면 비정규직 여자 종사자가 전년대비 16.2%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 폭 을 보이고 있으며 연평균 또한 1.3%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남자, 정규직 여자, 비정규직남자, 비정규직 여자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5 연도별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7년	33,201	22,850	9,071	9,784	74,906
2008년	29,402	20,421	7,860	8,636	66,319
2009년	33,855	23,406	9,079	10,038	76,378
전년대비증감률(%)	15.1	14.6	15.5	16.2	15.2
연평균증감률(%)	1.0	1.2	0.04	1.3	1.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그림 4.3.38 연도별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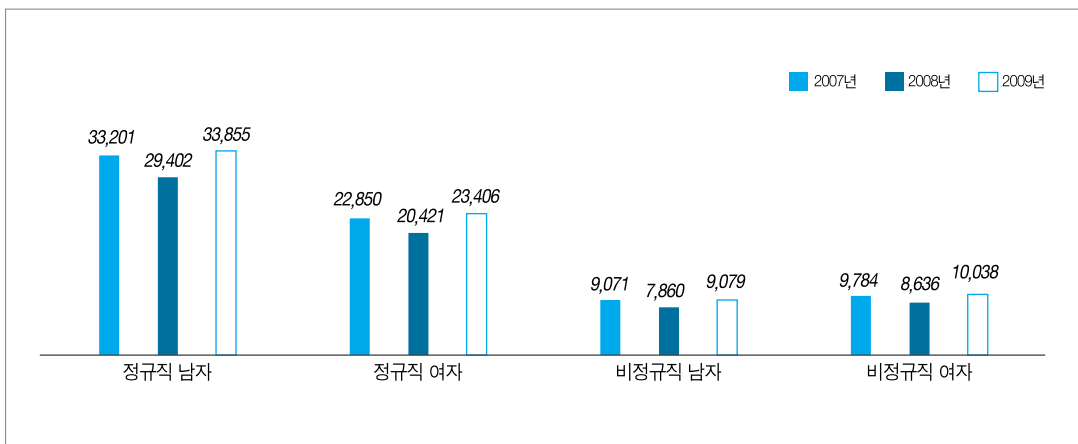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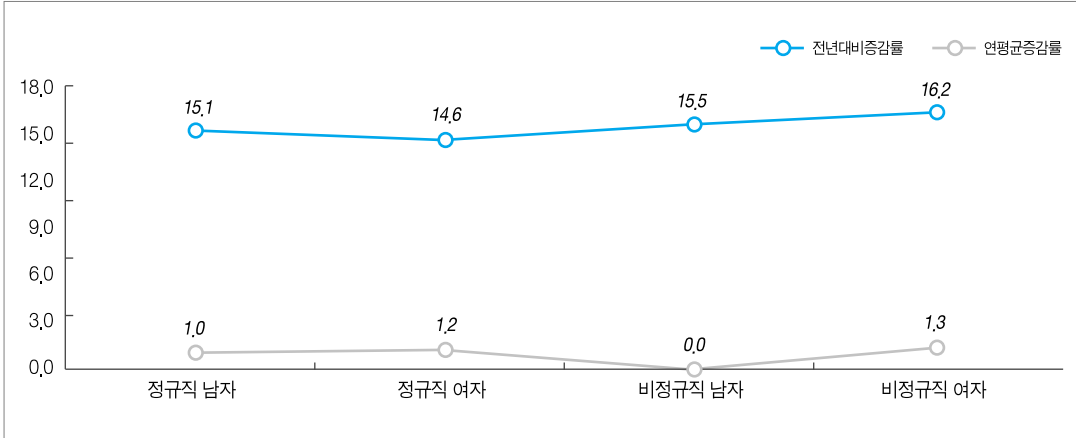


그림 4.3.39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6. 성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의 성별에 따른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남자는 4만2,934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56.2%이며, 여자는 3만3,444명으로 4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분류별로 살펴보면 ‘음악제작업’의 경우 남자는 1,564명(64.4%)이며, 여자는 865명(35.6%)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은 남자가 60명(74.1%)이며, 여자는 21명(25.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음반 배급 및 복제업’에서는 남자 191명(68.7%), 여자 87명(31.3%)으로 나타났고, ‘음반 도소매업’은 남자 360명(60.8%), 여자는 232명(39.2%)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의 남자는 1,507명(60.8%)이며, 여자는 972명(39.2%)이었으며, ‘음악공연업’의 남자는 1,370명(52.1%)이며, 여자는 1,258명(47.9%),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남자 3만7,882명(55.8%), 여자 3만9명(44.2%)으로 조사되었다.

표 4.3.36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중분류	소분류	남자	여자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1,219	715	1,934
	소분류 비중(%)	63.0	37.0	100.0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345	150	495
	소분류 비중(%)	69.7	30.3	100.0
	소계	1,564	865	2,429
	중분류 비중(%)	64.4	35.6	100.0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51	17	68
	소분류 비중(%)	75.0	25.0	100.0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9	4	13
	소분류 비중(%)	69.2	30.8	100.0
	소계	60	21	81
	중분류 비중(%)	74.1	25.9	100.0

중분류	소분류	남자	여자	합계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105	42	147
	소분류 비중(%)	71.4	28.6	100.0
	음반 배급업	86	45	131
	소분류 비중(%)	65.6	34.4	100.0
	소계	191	87	278
	중분류 비중(%)	68.7	31.3	100.0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02	57	159
	소분류 비중(%)	64.2	35.8	100.0
	음반 소매업	258	175	433
	소분류 비중(%)	59.6	40.4	100.0
	인터넷 음반 소매업 ³⁰⁾	-	-	-
	소분류 비중(%)	-	-	-
	소계	360	232	592
중분류 비중(%)	60.8	39.2	100.0	
온라인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91	24	115
	소분류 비중(%)	79.1	20.9	100.0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842	627	1,469
	소분류 비중(%)	57.3	42.7	100.0
	음원대리 중개업	97	66	163
	소분류 비중(%)	59.5	40.5	100.0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477	255	732
	소분류 비중(%)	65.2	34.8	100.0
	소계	1,507	972	2,479
중분류 비중(%)	60.8	39.2	100.0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259	1,153	2,412
	소분류 비중(%)	52.2	47.8	100.0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등)	111	105	216
	소분류 비중(%)	51.4	48.6	100.0
	소계	1,370	1,258	2,628
중분류 비중(%)	52.1	47.9	100.0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37,882	30,009	67,891
	소계	37,882	30,009	67,891
	중분류 비중(%)	55.8	44.2	100.0
음악산업 총합계*		42,934	33,444	76,378
음악산업 비중(%)		56.2	43.8	100.0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조사자 현황 자료없음)

** 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합계

이를 연도별로 보면 남자 종사자는 2007년에 4만 2,271명에서 2008년에 3만 7,262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4만 2,934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5.2%, 연평균 0.8% 증가하였다. 여자 종사자의 경우는 2007년에 3만 2,635명에서 2008년에 2만 9,05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에 3만 3,444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5.1%, 연평균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7 연도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합계
2007년	42,271	32,635	74,906
2008년	37,262	29,057	66,319
2009년	42,934	33,444	76,378
전년대비증감률(%)	15.2	15.1	15.2
연평균증감률(%)	0.8	1.2	1.0

* 외부인용자료(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그림 4.3.40 연도별 성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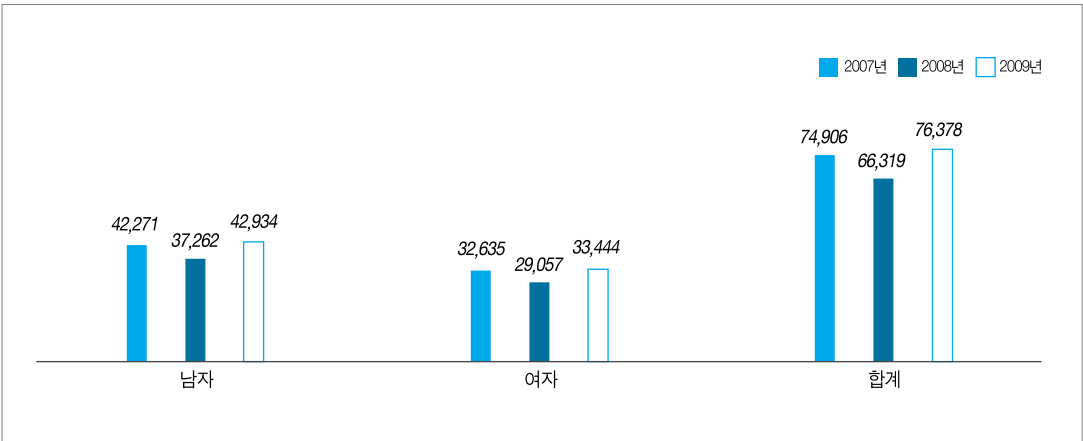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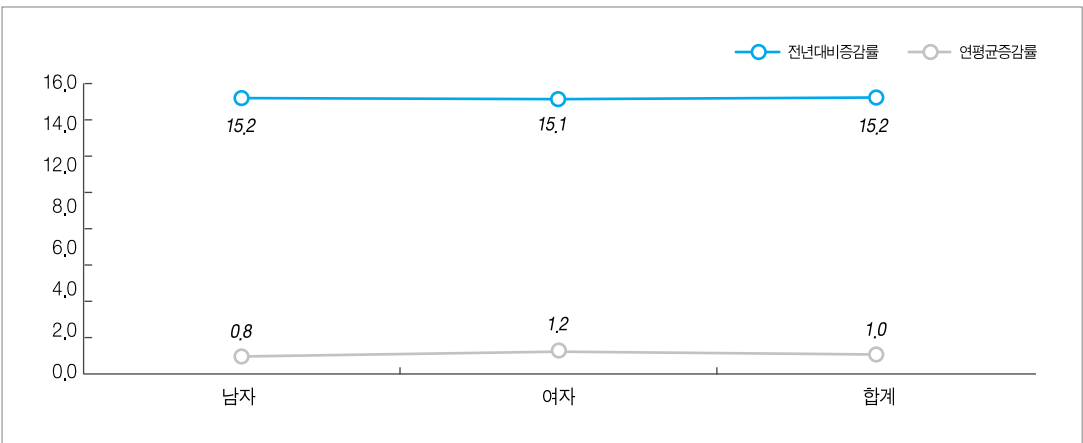


그림 4.3.41 성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7. 직무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의 직무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작' 분야의 종사자가 2,941명으로 전체의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를이어 '기타(유통)' 종사자는 2,040명(24.0%), '관리직' 종사자는 1,249명(14.7%), '사업기획' 종사자는 1,086명(12.8%), '마케팅/홍보' 종사자는 882명(10.4%), '연구개발' 종사자는 289명(3.4%)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기타(유통)' 종사자는 2007년에 1,650명이며, 2008년에 1,777명, 2009년에 2,04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연평균 11.2% 증가하였다. 반대로 '연구개발' 종사자는 2007년에 346명에서 2008년에 336명으로 감소 후 2009년에 289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14.0%, 연평균 8.6% 감소하여 증감률로 보면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사업기획'의 경우 2007년에 935명에서 2009년에 1,086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증감률 7.8%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을 제외한 다른 직무에서 종사자들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 인력의 감소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음악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벌어들이 수입이 연구개발에 재 투자 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개발의 경우 당장 줄여도 손실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의 부족이 음악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대책마련과 함께 음악산업에서도 타 문화 콘텐츠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에 의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며, 필요한 직무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들의 수용이 요구되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3.38 직무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중분류	소분류	사업 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 홍보	연구 개발	기타 (유통)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298	306	711	283	59	277	1,934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38	68	293	16	8	72	495
	소계	336	374	1,004	299	67	349	2,42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8	13	20	9	2	16	6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5	7	1	-	-	13
	소계	8	18	27	10	2	16	81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7	23	110	-	-	7	147
	음반 배급업	6	27	25	21	2	50	131
	소계	13	50	135	21	2	57	278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3	36	2	16	2	90	159
	음반 소매업	16	81	11	32	4	289	433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	-	-	-
	소계	29	117	13	48	6	379	592
온라인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1	19	30	16	7	32	11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169	196	276	118	63	647	1,469
	음원대리 중개업	8	32	-	16	8	99	163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76	72	396	46	35	107	732
	소계	264	319	702	196	113	885	2,479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415	325	997	283	99	293	2,41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등)	21	46	63	25	-	61	216
	소계	436	371	1,060	308	99	354	2,628
음악산업 총합계**		1,086	1,249	2,941	882	289	2,040	8,487
비중(%)		12.8	14.7	34.7	10.4	3.4	24.0	100.0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종사자 현황 자료없음)
 ** 인터넷 음반 소매업, 노래연습장 종사자 제외 합계

표 4.3.39 연도별 직무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기타(유통)	합계
2007년	935	1,380	2,895	916	346	1,650	8,122
2008년	1,141	1,338	3,205	911	336	1,777	8,708
2009년	1,086	1,249	2,941	882	289	2,040	8,487
전년대비증감률(%)	▽4.8	▽6.7	▽8.2	▽3.2	▽14.0	14.8	▽2.5
연평균증감률(%)	7.8	▽4.9	0.8	▽1.9	▽8.6	11.2	2.2

* 인터넷 음반 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제외

그림 4.3.42 연도별 직무별 종사자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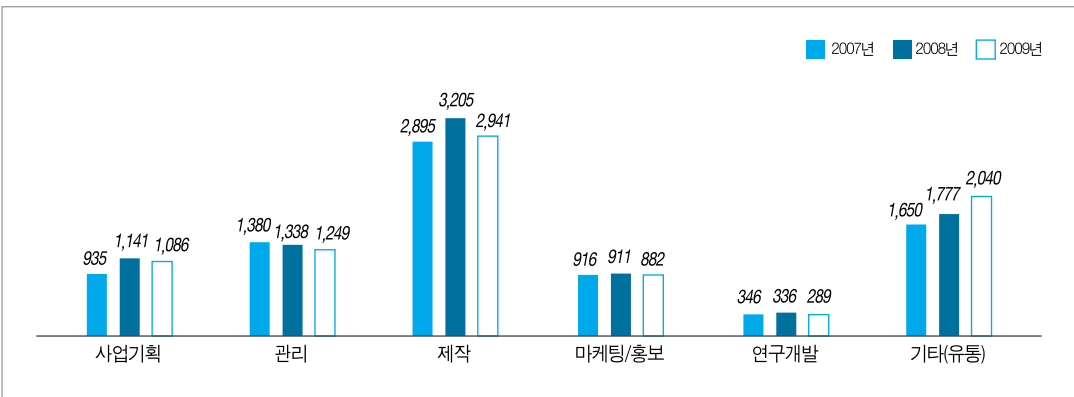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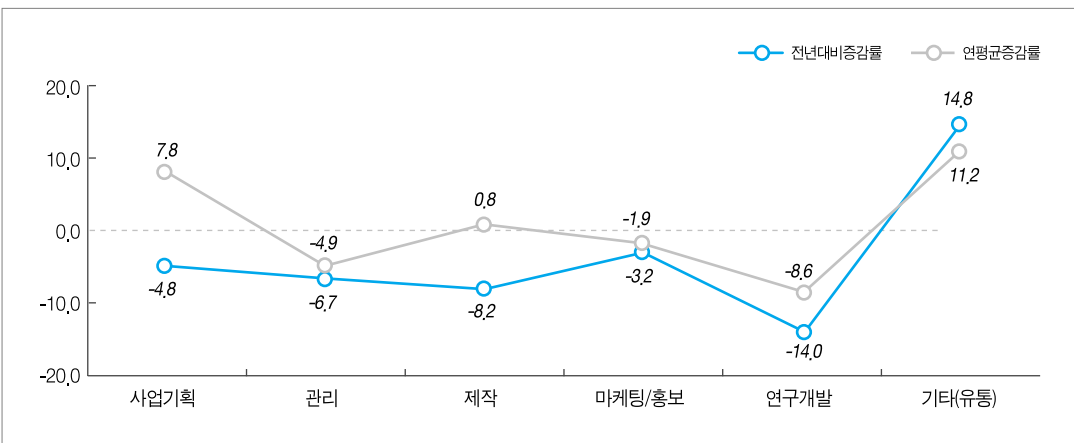


그림 4.3.43 직무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8. 학력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의 학력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졸' 학력의 종사자는 7,225명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하였다. 학력별 전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졸 이하' 종사자는 477명이며, 5.6%를 차지하였고, '전문대졸' 종사자는 546명으로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졸업 이상' 종사자는 239명이며 2.8%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 종사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 이상'은 2007년 260명에서 2008년 29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09년 239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전년대비 19.0%, 연평균 2.1% 감소하여 비교적 가파른 감소폭을 나타냈다. '대졸'의 경우 2007년 6,524명에서 2008년 7,284명으로 증가한 후 2009년 7,225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0.8% 감소한 반면 연평균은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졸'은 2007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전년대비 9.8%, 연평균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0 학력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중분류	소분류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63	99	1,737	35	1,934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29	67	388	11	495
	소계	92	166	2,125	46	2,42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8	15	43	2	6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4	9	-	13
	소계	8	19	52	2	81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18	22	107	-	147
	음반 배급업	13	16	99	3	131
	소계	31	38	206	3	278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31	29	99	-	159
	음반 소매업	113	36	284	-	433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	-
	소계	144	65	383	-	592
온라인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3	4	102	6	11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28	53	1,360	28	1,469
	음원대리 중개업	2	4	154	3	163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51	68	597	16	732
	소계	84	129	2,213	53	2,479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13	121	2,047	131	2,41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등)	5	8	199	4	216
	소계	118	129	2,246	135	2,628
음악산업 총합계**		477	546	7,225	239	8,487
비중(%)		5.6	6.4	85.1	2.8	100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종사자 현황 자료없음)

** 인터넷 음반 소매업, 노래연습장 종사자 제외 합계

표 4.3.41 연도별 학력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합계
2007년	685	653	6,524	260	8,122
2008년	524	605	7,284	295	8,708
2009년	477	546	7,225	239	8,487
전년대비증감률(%)	▽9.0	▽9.8	▽0.8	▽19.0	▽2.5
연평균증감률(%)	▽8.7	▽4.4	2.6	▽2.1	1.1

* 인터넷 음반 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제외

그림 4.3.44 연도별 학력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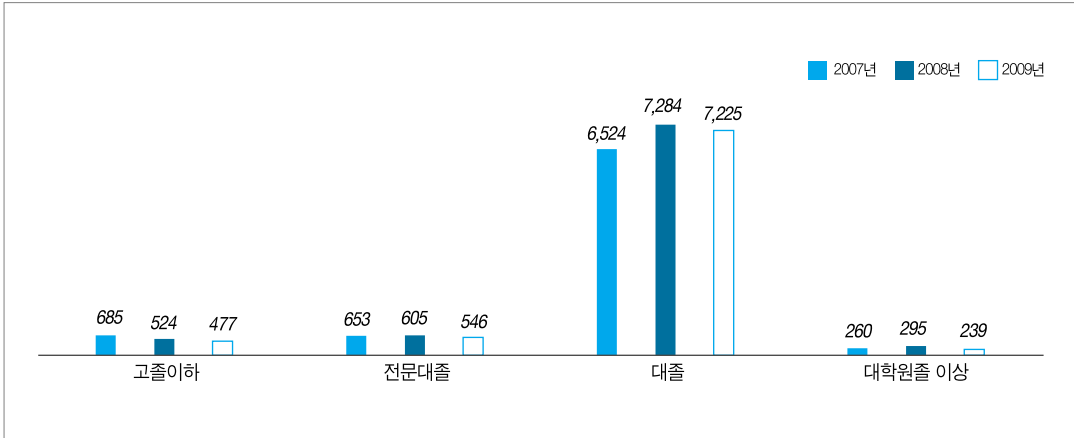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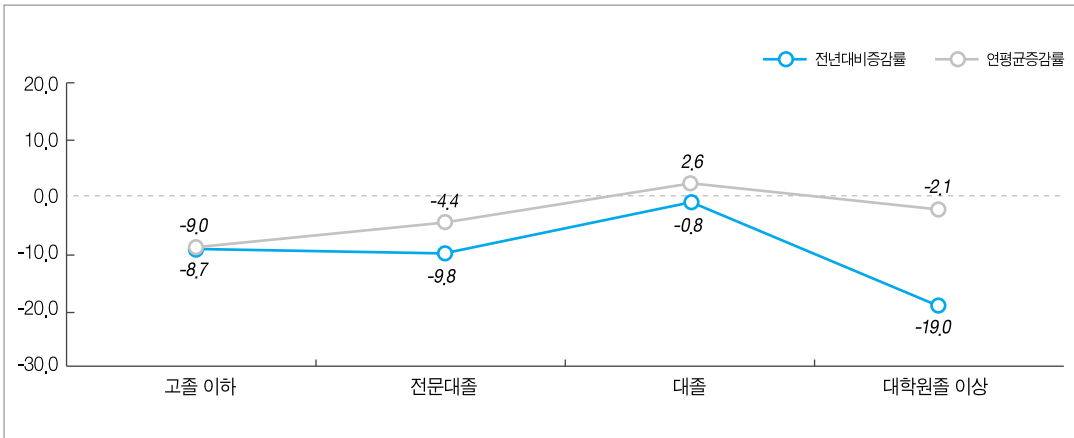


그림 4.3.45 학력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4.9. 연령별 종사자 현황

음악산업의 연령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종사자가 2,549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은 '34세 이하'의 종사자로 2,354명으로 조사되어 전체 27.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39세 이하'의 종사자가 2,204명으로 2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40세 이상'의 종사자의 경우 1,380명으로 16.3%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007년에 2,758명에서 2008년에 2,547명으로 감소 후 2009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2,5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지만 연평균은 3.9%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는 다르게 '40세 이상'의 경우 2007년에 1,206명에서 2008년에 1,513명으로 증가한 후에 2009년에 1,380명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연평균은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음악산업은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민감한 낮은 연령대의 종사자가 비교적 높게 분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3.42 연령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중분류	소분류	29세 이하	34세 이하	39세 이하	40세 이상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	623	587	431	293	1,934
	음반(음원)녹음시설 운영업	123	162	139	71	495
	소계	746	749	570	364	2,42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13	9	9	37	6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	3	10	13
	소계	13	9	12	47	81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48	42	36	21	147
	음반 배급업	38	32	36	25	131
	소계	86	74	72	46	278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26	38	59	36	159
	음반 소매업	91	93	109	140	433
	인터넷 음반 소매업*	-	-	-	-	-
	소계	117	131	168	176	592
온라인음악 유통업	모바일 음악서비스업	28	43	32	12	115
	인터넷 음악서비스업	406	432	433	198	1,469
	음원대리 중개업	61	43	35	24	163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CP)	258	236	145	93	732
	소계	753	754	645	327	2,479
음악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796	541	679	396	2,412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티켓발매등)	38	96	58	24	216
	소계	834	637	737	420	2,628
음악산업 총합계**		2,549	2,354	2,204	1,380	8,487
비중(%)		30.0	27.7	26.0	16.3	100.0

* 사이버쇼핑물통계조사 자료인용(종사자 현황 자료없음)
 ** 인터넷 음반 소매업, 노래연습장 종사자 제외 합계

표 4.3.43 연도별 연령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합계
2007년	2,758	2,166	1,992	1,206	8,122
2008년	2,547	2,363	2,285	1,513	8,708
2009년	2,549	2,354	2,204	1,380	8,487
전년대비증감률(%)	0.1	▽0.4	▽3.5	▽8.8	▽2.5
연평균증감률(%)	▽3.9	4.2	5.2	7.0	2.2

* 인터넷 음반 소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제외

그림 4.3.46 연도별 연령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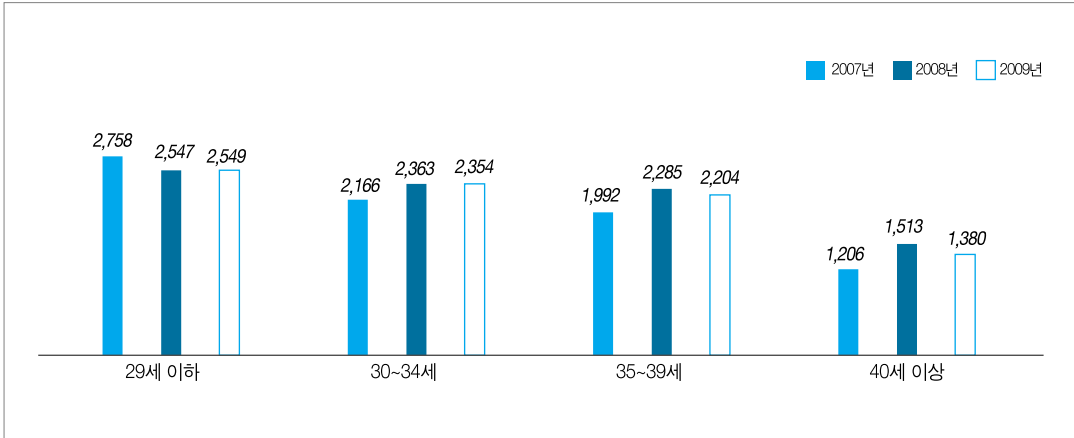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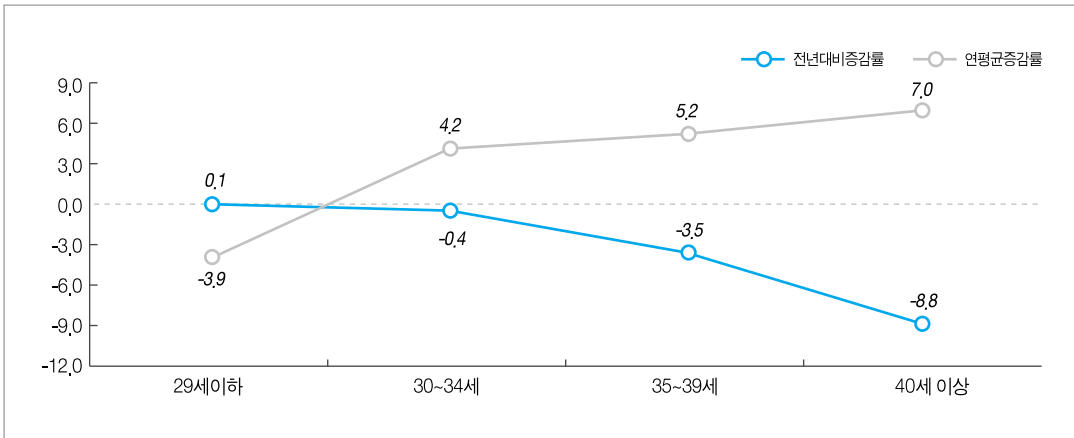


그림 4.3.47 연령별 종사자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3.5 음악산업 부가가치 구성

음악산업의 부가가치 구성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6,227억 원(6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년대비 9.5%, 연평균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산업 부가가치 구성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5.5%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또한 1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가치 구성 중 음악산업 특성상 ‘감가상각비(무형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DRM-Free가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감가상각비’ 증가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

연도별 ‘부가가치액’을 보면 2007년 7,877억 원 → 2008년 9,466억 원 → 2009년 1조 227억 원으로 전년대비 8.0%, 연평균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

상이익'은 1,218억 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 연평균 13.1% 증가하였고, '인건비'는 6,227억 원으로 전년대비 9.5%, 연평균 11.8% 증가하였다. '순금융비용'은 490억 원으로 전년대비 7.9%, 연평균 16.3%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비'는 1,36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 연평균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료'는 695억 원이며 전년대비 5.1%, 연평균 7.8% 증가하였고, '조세공과'는 235억 원으로 전년대비와 연평균 모두 3.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44 음악산업 부가가치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부가 가치액	부가 가치율	부가가치 구성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
2,740,753	1,022,766	37.32	121,869	622,796	49,024	136,005	69,571	23,501
부가가치액 대비 구성비			11.9	60.9	4.8	13.3	6.8	2.3
매출액 대비 구성비			4.4	22.7	1.8	5.0	2.5	0.9

표 4.3.45 연도별 부가가치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 구성현황						부가가치액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	
2007년	95,313	497,832	36,235	76,408	59,866	22,055	787,709
2008년	115,489	568,928	45,438	127,796	66,211	22,773	946,635
2009년	121,869	622,796	49,024	136,005	69,571	23,501	1,022,766
전년대비증감률(%)	5.5	9.5	7.9	6.4	5.1	3.2	8.0
연평균증감률(%)	13.1	11.8	16.3	33.4	7.8	3.2	13.9

그림 4.3.48 연도별 부가가치 구성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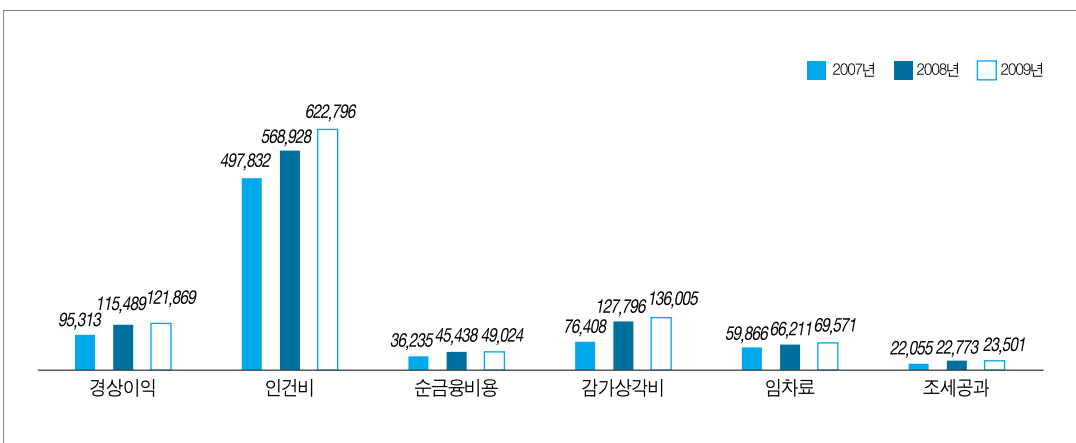


그림 4.3.49 부가가치 구성 전년대비증감률 및 연평균증감률 (단위: %)

